

평택시의회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서민경제 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논의

평택시의회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하)'는 8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가칭)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윤하 위원장과 최준구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관우, 김혜영, 이종원, 류정화, 김산수 위원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인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위는 그간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난과 제도권 내 금융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업주들의 현실을 개선할 방법을 강구해왔으며,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적 기금인 서민경제협력기금을 조성해 사업주들에게 저리의 용자를 제공하고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복구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윤하 위원장은 "특위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들까지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서민경제협력기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집

행부의 세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준구 부위원장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기금 설치와 운용에 대한 자치법규 제정은 사업 방향과 운용 기준 등에 대한 사업 대상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본 기금이 성공적으로 설치 및 운용되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논의들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은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

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므로, 조례안이 발의되기까지 어떤 논의와 절차를 거치는지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구성된 이후 사회적 경제기업의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회적 경제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시현/기자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 건의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8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대부분의 조례에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을 지급하고, 구속되는 경우 의정 활동비는 제한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있어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으로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을 권고(22.12.26.)했으나 5월 현재 일부 의회만 조례 개정에 나선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선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자기반



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소속 17개 시도 의회가 솔선수범해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남출/기자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배후경제권 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배후경제권과 연계한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 연구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배후경제권 연구회'는 4일 "반도체·항공·방위산업 연계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영형 교수(금오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도체·항공·방위 산업과 관련한 항공물류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신공항 경제권 연관 산업의 육성 추진 고도화를 이끌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겠다고 이번 연구의 의미를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박규탁 의원은 통합신공항 건설로 유동인구는 물론이고 정주인구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인근 배후도시의 인프라 마련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와 연계하여 정주 환경 인프라 구축과 집적화된 기반이 잘 갖춰진 배후 도시가 설계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더욱 더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김창혁 의원은 앞으로 건설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기존 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성장 가능성 등 전반적인 경상북도의 강점을 부



각시키고 차별화시켜 관련 산업에 대한 선점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황두영 의원은 통합신공항이 개항되더라도 초기에는 상주인구의 유입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반면, 물류산업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공항 배후 도시에 대한 경상북도의 정책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백순창 연구회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통합신공항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실질적인 성장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통합신공항 시대를 맞

이하는 경상북도의 대응전략이 차질 없이 완벽히 준비될 수 있도록 도회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백순창, 김창기, 김창혁, 박규탁, 정근수, 황두영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통합신공항 배후경제권 연구회'를 구성하여, 오는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추진되며, 연구용역 결과는 의원들의 정책 개발과 입법 대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시흥시의회, 제51회 어버이날 행사 참석... "어르신들이 공경받고 존중받는 따뜻한 시흥 만들어갈 것"

경기 시흥시의회가 5월 8일 능곡중앙공원에서 열린 제51회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어르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시흥시립전통예술단 공연, 효행자 등에 대한 표창, 편지 낭독, 어버이날 노래제창, 호 문화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능곡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르신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버이날을 기념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이 이어 경료효친 문화 확산에 기여한 효행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2부 행사에서는 트로트, 마술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으며 부대 행사로 건강부스, 드립백 만들기, 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돼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행사에 참석한 송미희 의장과 시의원들은 참석자들과 함께 '어머님 은혜' 노래를 부르며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해 그 의미를 더했다.

송미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제는 시흥시 어르신 모두가 제게 어버이시다"라며 "어르신들이 공경받고 존중받는 따뜻한 시흥을 만들어가기 위해 시흥시의회 동료 의원들과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디지털 문해력 조례개정관련 정담회' 가져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8일 도의회상담소에서 사회적 기업 대표와 함께 "디지털 문해력 조례개정"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채명 의원은 무인 정보 단말기 보급으로 인해 생기는 정보격차를 줄이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도 기회의 창구를 열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는 일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 의원은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고령자들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들의 수준에 맞는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양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경기도 서포터즈 운영과 관련된 정책제안을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기도 경로당 서포터즈 프로젝트는 노인 중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별 1명 이



상의 서포터즈를 선발해 매주 2개소 내외의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같은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교육하는 일을 한다.

조혜영/기자

충남도의회, 시도의회의장協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 한목소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8일 청주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임시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을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활발한 연구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총액한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원연구단체 운영비를 독립된 예산과목으로 신설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했으나, 그 지원대상을 의원연구단체에 한정하여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원 연구단체 운영예산은 총액한도제의 적용대상인 의정운영공통경비로만 편성하게 되어 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총액한도제의 대상이다. 이에 의원연구단체 예산만을 증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조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에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시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원정책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소관 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행인,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 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세계체육기자연맹(AIPS) 총회 환영만찬서 '국제스포츠 도시, 서울' 알려

제85차 세계체육기자연맹(AIPS) 총회 5.8~12. 개최, 만찬행사 소피텔 엠배서더 서울서 열려

서울시는 지난 8일 2023 세계체육기자연맹(AIPS) 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150여 개국 220여 명의 참석자를 소피텔 엠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만찬 행사를 통해 환영했다.

세계체육기자연맹 총회는 전 세계 체육기자들의 협력 강화 및 화합도모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1987년(제50차, 서울), 2011년(제74차, 서울), 2017년(제80차, 평창)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2023년(제85차) 세계체육기자연맹 총회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 송파구 소재 소피텔 엠배서더 서울에서 개최된다. 지아니 멜로(Gianni Merlo) 회장을 비롯한 세계체육기자연맹 집행위원 및 일반회원 등 150여 개국 220여 명이 참석한다.

서울시는 총회 개최 지원을 통해 '국제스포츠 도시, 서울'의 위상을 알리고 2036 서울 하계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에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총회는 8일 집행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9일에는 세계체육기자연맹 스포츠 미디어 어워즈가 열린다. 10일과 11일에는 총회 본회의와 참석자들이 한국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K-컬처 콘텐트 홍보 및 도시관광(City Tour) 등의 체험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체육기자연맹 스포츠 미디어 어워즈는 체육기자들이 현장에서 취재한 작품들을 심사해 영향력, 오디오, 사진 등 부문별로 시상하는 행사이다.

총회 1일 차인 8일에 개최된 환영 만찬에서 서울시는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문화·관광·체육이 어우러진 서울의 모습을 소개했다.

만찬에는 지아니 멜로(Gianni Merlo) 세계체육기자연맹 회장, 정희돈 아시아체육기자연맹 회장, 양중구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을 비롯해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진중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총회 환영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김의겸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의겸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총회 환영 만찬에서 환영사를 통해 "2017년 평창에 이어 또 한 번 서울에서 세계체육기자연맹 총회가 개최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서울이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를 통해 국제스포츠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금천구의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6월 30일까지 구청 1층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 이벤트 부스 설치

금천구는 6월 30일까지 '도시브랜드 개발을 위한 주민참여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금천구청 1층 민원실과 각 동 주민센터에 주민참여 이벤트 부스를 운영한다.

참여하는 주민은 이벤트 부스를 방문해 '금천은 ○○○이다' 형식의 긍정적 이미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된다. 해당 이벤트는 금천구청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금천구는 참여 주민 중 5월과 6월에 각 50명씩 총 1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과 햄버거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천 하모니 축제 기간인 5월 13일과 14일에는 금천구청 앞 도로에서도 도시브랜드 개발 이벤트를 위한 현장 부스를 운영한다. 이벤트에 참여한 주민은 롤러 돌리기를 통해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도시브랜드의 핵심 요소를 주민과 함께 찾아가고자 하니 주민들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송파구, '경계선 지능인' 사회진출 돕는다... 데이터라벨링 전문 교육 실시

'경계선 지능인'의 취업 위기에 주목했다!

송파구는 장애와 비장애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데이터라벨링 일자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과 평균 이상의 지능지수를 가진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지능지수(IQ) 71~84 사이로 지적장애 기준(지능지수 70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교육 및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구는 '경계선 지능인'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지원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데이터라벨링 일자리 교육'을 기획했다.

특히, 최근 '챗GPT'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라벨링' 교육을 마련했다.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관내 사회적기업 테스트웍스와 함께 경계선 지능인 주민(17~40세) 20명을 대상으로 AI 데이터라벨링 교육을 지원한다.

'데이터 라벨링'은 인공지능(AI)의 학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검증해 데이터에 이름을 붙이는 일로,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들이 학습하여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동희/기자

또한,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는 아니지만 때때보다 느리게 배우고 사회성이 다소 부족한 느린 학습자인 점을 고려해 최적의 학습환경과 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학습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인공지능의 기초 ▲데이터라벨러 직무 성장 경로 ▲시수집 및 가공 플랫폼 실습 ▲AI 학습 데이터셋 기본교육 ▲데이터 라벨링 실습 ▲현장 체험을 통한 직업 탐방 등으로 구성했다.

수로 후에는 ▲수강생을 위한 데이터라벨링 클라우드 워커 활동 지원부터 ▲데이터라벨러 성장을 위한 심화교육과정 안내 ▲면접을 위한 컨설팅까지 경계선지능인들의 취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은 1, 2기로 나누어 10명씩 진행하며, 1기는 5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2기는 오는 7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일자리 교육이 취업과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규석/기자

서초구, 960억원 규모 대출 지원으로 중소기업인 어깨 활짝!

서울 서초구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과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인들이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총 960억원 규모의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8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대 700억원 규모의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을 시행한다. 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구와 은행이 보증자원을 출연하고 지정 은행 대출시 재단이 소상공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방식이다. 서

울신용보증재단은 한도사정 없이 업체당 7천만원까지의 대출을 보증하며, 재단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 신용평가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보증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을 이용할 경우 신청자는 담보여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정은행을 방문하여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5월 기준 3%대(변동금리)의 금리로 5년 이내에서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등 상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접수를 위해서는 관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14개 지점에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외에도 구는 지난 3월부터 중소기업인을 위한 다양한 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구기금 60억원을 통해 담보력을 갖춘 업체에 최대 1억원까지 대출 시행하는 사업이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최저인 연 0.1%의 대출금리를 올 7월까지 유지한다.

구 자금으로 부족한 대출은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이어간다. 관내 신한은행, 우리은행과의 협력자금 마련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대출을 한 업체당 2억원 한도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출금리를 구에서 최대 3%까지 지원해준다. 지속적인 고

금리 상황에서 전년도 2%였던 이자보전율을 3%까지 상향하여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은 신한은행 3개 지점(서초구청지점, 양재역금융센터, 양재동지점)에서,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은 관내 신한은행 전지점 및 우리은행 양재역지점에서 자금소진시까지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 등 필요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구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대출지원을 통해 경기불황과 고금리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중소기업인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경영안정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영양군 양수발전소 범군민 유치위원회, 일월면 결의대회 개최

영양군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위원회'는 지난 9일(화) 10시, 일월면 종합복지관에서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일월

특히, 이날도 영양군청 주민복지과에 근무한 정지윤 공무원은 영양군 양수발전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뜨거운 호소로 참석한 모든



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양봉철 상임공동유치위원장 의장, 오도창 영양군수, 읍면·단체 상임 공동유치위원장 및 읍면공동위원장, 집행위원회 실무위원, 일월면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영양군 양수발전 유치를 위한 결의 다졌다.

분들로부터 뜨거운 함성과 박수갈채를 받아 영양군 양수발전소 유치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음을 실감케 해줬다.

특히, 이날 일월면결의대회에서는 유치결의대회를 마친 후, 일월면 농악대의 선두로 하여 200여명의 참여 주민들이 일월면 시가지 행진을 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해 유치 열기를 한껏 고조시켜 눈길을 끌었다.

이날, 양봉철 상임의장은 "지난 입암면, 영양읍, 석보면 결의대회에 이어 일월면 결의대회를 개최하면 서 군민들이 양수발전소 유치 열기가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영양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곳 영양군이 양수발전소를

가 얼마나 뜨겁고 간절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영양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곳 영양군이 양수발전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똘똘 뭉쳐 힘을

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우리 모두의 염원으로 반드시 양수발전소를 유치해 경제적 효과는 물론, 인구소멸 위기군을 탈피해 영양을 반드시 살리겠다"면서 "영양군에 양수발전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가 앞장 서겠다"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강력하게 호소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는 청기면에서 결의대회가 개최되고, 10일 오전중 수비면 결의대회를 끝으로 읍·면민 결의대회를 마친후, 오는 11일, 제18회영양산나물축제 개막일 맞춰, 범군민 결의대회를 통해 영양전역에 양수발전소 열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광명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사실상 철회에 환영 뜻 밝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타당성 없음' 결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18년간의 역주행 끝에 백지화라는 종착역을 맞이했다.

광명시는 9일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에 대해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짓자, 즉시 박승원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철회를 환영한다"며 "이번 기재부의 결정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국민주권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명백한 사례"라고 밝혔다.

18년 동안 타당성 조사를 3번이나 벌이고도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인 광명시민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결국 좌초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평가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구로구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무려 18년 전에 시작된 데다 세 번째 타당성 재조사에서조차 광명·시흥 첨단R&D 산업단지 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추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 등 서부권 자족문화수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광명시의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됐

다는 태생적 한계를 품고 있다.

박 시장은 "오늘의 공적(功績)은 민주적으로 장렬하게 저항해온 위대한 30만 광명시민과 당파를 초월한 협치로 시민과 함께 투쟁한 광명시 지역구 의원, 직분과 소명을 지고 시민에 헌신한 공직자들의 승리"라고 규정했다.

또 이날 입장문 발표에 함께 한 사학 투쟁 시민들에게 "용맹한 투지로 기재부 앞에서 눈물의 사발로 30만 광명시민의 뜻을 대신했다"며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박 시장은 "그동안 광명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전 사업을 강행해 온 기재부와 국토부를 온전히 신뢰할 수만은 없다"며 기재부와 국토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의 최종적이고 확실한 철회를 재차 강하게 요구했다.

광명시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의 사실상 백지화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로의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그동안 국토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과 함께 제안했던 구로~하안~노온사 입출고선의 대안으로 추진했던 '신천~하안~신림선' 등의 철도계획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한다.

시흥시 신천(시흥)~하안(광명)~



▲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이승호 공동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 등 7명은 9일 오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독산(금천)~신림(관악)을 연결하는 신천~하안~신림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경기 광명·시흥시, 서울 관악·금천구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 등을 이르면 시일 내에 개최해 시민 중심, 시민 주도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8년간의 추진 경과를 백

서로 제작하고 시민 보고대회를 여는 등 지방자치시대 시민 주권을 수호한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광명시 개청 42년사를 관통한 고난과 역경에도 광명시민과 광명시는 참여와 단합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을 이뤄냈다"며 "광명시 전역에서 시민들이 보여줬던 이번 항쟁의 들불을 광명시 미래를 위한 환한 등불로 다시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용민/기자

성남산업진흥원 '2023 인디크래프트' 우수 선정작 'TOP60' 발표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 한국모바일게임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디게임의 축제, '2023 인디크래프트' 전시 참여 우수 선정 작품 TOP60 명단이 확정됐다.

'2023 인디크래프트'는 올해 총 263개 사에 달하는 중소, 인디게임 개발사들이 지원했으며,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공정하고 엄정한 서류, 발표심사를 거쳐 우수 선정 작품 60개사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운영사무국은 특히 금년도 처음 시도한 챌린저(대학생) 부문의 작품이 두드러지며, 대한민국 미래 게임산업의 발전을 책임질 우수 게임개발사들이 선발됐다고 평가했다. 국내 부문 50개사, 챌린저 부문 10개사, 해외 부문 20개사 포함 총 80여개 우수 게임 개발사들의 게임 콘텐츠 상세 정보는 5월 중 인디크래프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펼쳐질 '2023 인디크래프트'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펼쳐지는 오프라인 전시회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2020~2022년 메타버스를 통한 온라인 가상게임쇼로 관계자-유저들을 만나며 새로운 전시 참여 형태의 시작을 알렸다면, 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해 게임산업 관계자, 유저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만나며 성남

시가 인디게임 붐을 일으킬 전망이다.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식도 계속된다. 인디크래프트 전용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 해외에서도 'K-인디게임'을 만나볼 수 있도록 갤러리 공간이 조성되며, B2B 특화 글로벌 컨퍼런스를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우수 선정 작품에는 전시 참여 기회와 함께 총 1억원 상당의 사업화 지원금과 후원사 사업화 지원이 준비된다. 특히 인디게임 개발사만을 위한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외 게임산업 전문가들의 게임개발과 마케팅, 투자, 트렌드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월 9일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 우수 선정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인디크래프트 소개 및 관계자 네트워킹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디크래프트 운영 사무국은 소감을 통해 "인디크래프트에 보내주시는 게임 개발자 분들의 열정에 매년 감탄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오랜만에 인디게임 유저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되는 만큼, 글로벌 인디게임의 축제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 앞으로도 2023 인디크래프트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5월 말 전시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성윤/기자

하남시, 여름철 풍수해 예방 및 교량 집중안전점검 실시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8일 여름철 우기 대비 취약 지역 집중 점검을 위해 안전정책과 등 3개 부서를 합동 구성하여 풍수해 우려 지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이 시장은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과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3개소 현장을 찾아 재해유발요소 사전 파악 및 피해발생을 예방하고자 재해복구 진행상황, 재난예방 경보시스템 작동 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기상청 예보에 따라 5~7월 '엘니뇨' 발달로 한반도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



상되면서 이 시장이 선제적 대비를 통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하남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주요 교각으로 세월1교의 경우

▲2022년 호우피해 재해복구 및 하천 준설작업 진행 상황(세월1교)을 점검했고, 덕풍1교에서는 ▲하천변 설치 재난예방 경보시스템 정상 작동상태 점검 및 시험방송 테스트를 실시했다.

박강호/기자

Let's Global Indie Games!

2023 INDIE CRAFT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자치분권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합니다!

NH 100년

유동 혁신: "올바른 유동위원회, 출범을 통한 유동 구조 혁신과 함께 수급예측 정보시스템 구축, 농협을 경쟁력 강화로 농 축산물 유통 대변화"

디지털 혁신: "농업인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농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농촌 지능화 등 디지털농업 강국 실현"

조직문화 혁신: "조직 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경청'을 실천하고 창의적 생각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이천시, 민선8기 제3차 당정협의회 개최

이천시는 8일 국민의힘 이천시당 위원회의와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 방안과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민선8기 제3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경희 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김하식 시의회 의장, 허원·김일중 도의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실 보좌관, 시청 간부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 2024년도 국·도비 지원이 요구되는 13개 사업과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제도개선 과제 등 11건의 주요 지역현안의 추진 방안에 대해 당·정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등 대규모 시설사업과 지역 숙원사업에 대하여 2024년도 국·도비가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또한, 이천-홍천 간 국지도70호선 확포장, 중부고속도로 호법ICT-남이천IC 확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국책사업 추진과 농업진흥지역 현실화 등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자료에 당에 전달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김경희 시장은 "민선8기 이천시정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앞으로 지역발전 위한 현안 해결을 위해 당정이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 역시 "오늘 논의된 이천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 방방을 강구하고 적극 협력하겠다. 지역의 주요 사항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

자"고 답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시는 국·도비 지원 사항으로 ▲도수관로 복선화 및 이천정수장 증설 사업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사업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여성비전센터 건립 ▲중포동체육공원 조성 ▲이천시 예술인회관 건립 ▲올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축산약취 개선사업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지원 ▲2024년 스마트 과수 연구 시험포 조성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의 13건을 요청했으며, 현안 사항으로는 ▲국지도70호선 (이천-홍천) 조기 완공 ▲중부고속도로 호법ICT-남이천IC 확장 ▲용인-이천 국지도84호선 신설계획 반영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및 규제현실화 ▲이천 월포지구 배수개선사업 지원 ▲가남·대월·호법지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지원 ▲후계농 육성용자급 농신보 보증 범위 확대 ▲수소버스 보조금 시군비 부담 완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소아 재활센터 건립 ▲지방도 확포장 '경기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 ▲지방도 333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원 등의 11건을 건의했다.

또한, 국민의힘 이천시당은 ▲이천핑크로드사업 조속 착공 ▲관동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추진 ▲삼용저수지 돌레길 조성 ▲농촌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지원계획 수립 ▲국회·도의회·시의회 협력전담팀 구성 ▲이천 관내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 철거 ▲마장면 이치1리 국도 방음벽 쓰레기 수거 등을 제안했다.

이성윤/기자

지친 일상, 경기도 배달특급과 '화목'하게 한번 날려봅시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화목'한 소비자 이벤트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함께하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오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1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화목'한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배달특급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1만 9천 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천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회원 1인당 기간 내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할인 쿠폰은 선착순 발급으로 사



용처는 5월 배달특급과 함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반올림피자, 멕시카나, 빅스타피자, 청년피자, 피자헛, GS25, GS더프레시, CU, 유가네달갈비, 해두리치킨, 부여치킨, 코리아엔탈 갯잎두마리치킨 등 12개 브랜드다. 할인 쿠폰은 해당 브랜드 가맹점

화면 상단 '쿠폰 다운로드'를 통해 내려받아 바로 주문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이번 할인은 더하기 쿠폰으로 다른 할인 쿠폰과 중복해 사용할 수 있다. 이송록 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사랑하

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달특급이 특별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배달특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고양국제꽃박람회 8일 폐막...대한민국 화훼산업 대표축제 위상 확인

관람객 30만명 예상...화훼산업·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특독'

2023 고양국제꽃박람회가 12일간의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화훼·산업인을 위한 '고양국제꽃어워드쇼'로 폐막행사를 마쳤다.

8일 고양국제꽃박람회 화훼교류관에서 개최된 '고양국제꽃어워드쇼'에서는 그동안 각각 개최했던 'IHK컵 플라워디자인 기능경기대회', '프리저브드 플라워컵 경진대회', '대한민국 어린이 꽃장식대회', '한국꽃이 대회' 등 다양한 경진대회를 통합하여 전시와 화에분야의 총 11개 부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최고 상훈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 총 79점의 작품이 상을 받았다. 화훼관련 대회를 세분화하여 대회수준과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사 참가자 전원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시상식을 실시하여 수상자들의 긴장감을 더했다.

시상식에서는 공연과 함께 국내 최정상 플로리스트 작가 18인의 플라워 부케쇼, 대한민국 최고의 위상



과 실력을 겸비한 화훼작가 작품도 선보였다.

고양특례시는 전국 최고 화훼생산 지역이자 유동 중심지역으로 명성을 더해가고 있다. 올해 15회를 맞이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오랜 시간 동안 고양시를 꽃의 도시로 각인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년 만에 개최된 2023고양국제꽃박람회는 기쁨과 행복, 감동을 전하는 대표적인 꽃 축제에 그 위상을 높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레이트 리셋'이

3개의 주제정원, 꽃의 본질과 다양성을 탐구할 수 있는 공중정원, 물의 정원, 고양의 꽃등 다양한 테마를 가진 16개의 야외정원이 조성됐다.

화훼산업관 실내 전시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황수로 명장의 '궁중채화', 해외 희귀식물과 국내의 이색식물 그리고 꽃과 미디어아트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화훼 전시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3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일산 호수공원 주변 상가와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꽃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았으며 화훼판매와 소비가 촉진되어 지역상가의 매출확대로 이어졌다.

이동한 고양국제꽃박람회 이사장은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꽃과 함께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 감동을 주는 행사로 자리매김해왔으며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훼산업 축제에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화훼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상을 갖춘 축제형 화훼박람회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평택시, 숨 쉬는 500년 객사

경기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137호 평성을 객사 일원에서 펼쳐지는 생생문화재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9년 차를 맞이하며, 지역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주민과 함께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택시 평성을 15개 단체 및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k6캠프 험프리스(미군부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보기 드문 축제로 추진된다.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며, 그중에서도 [바느질부대]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축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통 복식을 손수 지어 축제의 날에 참가하게 되는 주민들의 의지와 정성이 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메인 행사인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은 옛 평성현의 현감이 평성을 객사에서 한양에 계신 임금님께 예를 올렸던 망궐례 의례를 재현하는 전통문화 축제로 구성된 행사로, 평택 시민들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한다. 그리고 현감부터 관기까지의 모든 배역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이 주인공인 축제이다.

본 행사는 비영리 문화예술기획단체인 우리문화달구지(대표 경상현)가 주최하고 문화재청과 평택시가 후원하고 있는 행사로, 2022년 문화재청장 우수상 수상과 2023년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수상했다.

마스크를 벗어 던진 올해에는 주민들의 열정이 배가 되어 축제가 더욱 빛날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온 가족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나들이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시현/기자

생생문화재 2023생생문화재 숨쉬는 500년 객사 망궐례 의례 재현체험
Reenactment of the Manggollye

○ 행사일시 (Date Time)
▶ 2023년 5월 19일(금), 20일(토)
1회) 10시 ~ 11시
2회) 14시 ~ 15시
▶ May 20, 2023 (Sat), 19, 2023 (Fri)
1st) 10시 ~ 11시
2st) 14시 ~ 15시
※ 망궐례 의례 체험 및 한국 민속놀이 체험
※ 블로그 / blog.naver.com/4235umd

x 망궐례란?(What is Manggollye?)
- 조선시대에는 이곳에 왕을 상징하는 전패(轉牌)를 모시고 매일 조 하루와 보름마다 대궐을 향하여 예를 올리는 의식이다.
- Manggollye is a bowing ritual of the Joseon Dynasty at the Gaeksa, where the jeonpaie (a wooden tablet symbolizing the every month) was inscribed.

행사명 Program	대구분 Side	소구분 Event	시간 Time	장소 Location	내용 Content
망궐례 재현 체험 Reenactment of the Manggollye	1회 1st	망궐례 체험 Manggollye	10:00-10:30	Paeng seong-eup Gaeksa	평성읍 객사 및 망궐례 소개 Introduction of the paengseong-eup Gaeksa and Manggollye
		민속놀이 Traditional games	11:00-12:00		민속놀이 체험 Experience Traditional games
	2회 2st	망궐례 체험 Manggollye	14:00-14:30		평성읍 객사 및 망궐례 소개 Introduction of the paengseong-eup Gaeksa and Manggollye
		민속놀이 Traditional games	14:30-15:00		민속놀이 체험 Experience Traditional games

● 주최/주관 : 우리문화달구지 ● 후원 : 문화재청 / 평택시 ● 문의 / 010.8931.1814

정명근 화성시장, 방범 취약지역 야간 순찰

정명근 화성시장이 8일, 시민방범 순찰대 등과 함께 방범 취약지역 야간 순찰에 나섰다.

이번 야간 합동순찰은 안전한 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박진성 동탄경찰서장을 비롯해 태안지구대원, 병점1동 시민방범순찰대 등 53명이 함께 했다.

순찰에 앞서 정 시장은 태안지구대원과 시민방범순찰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에 격려를 보냈다. 또한 태안지구대를 시작으로 병점역사 일대와 초등학교 주변, 아

파트 단지 입구, 여성안심 귀갓길 등 총 2km 구간을 점검했으며, 가로등, 횡단보도, 신호등 추가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민방범순찰대와 태안지구대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시장은 이번 야간 합동순찰을 시작으로 관내 방범 취약지역을 수시로 순찰할 계획이다.

양시현/기자



이천시 서구, "재외동포청 청라에 설치 희망...입지 타당성 갖춰"

이천시 서구가 9일 인천 유치가 확정된 재외동포청을 청라 설치 요청했다.

서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강범석 서구청장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재외동포청 청라 설치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서울을 연결하는 중심지역이 '서구'라며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등 최적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청라국제금융단지 내 준공을 앞둔 '핵심 오피스'에 즉시 입주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인근 공공시설 용지 확보를 통해 신청사 건립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서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유일하게 청라만이 정부 직속기관이 없다"며 "인천 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청라에 재외동포청이 설치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구는 "청라에는 동구장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의료복합타운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다"며 "재외동포청 직원뿐 아니라 방문객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외교부 실무진이 청라 내 입지 후보지를 실사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사업자 측에 건물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하는 등 청라 설치 용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내 십수 년

째 개발이 부진한 국제업무단지, 국제금융단지 등에 재외동포청이 설치되면 지역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 주민들도 재외동포청 설치를 염원하고 있다. 앞서 서구는 지난 3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한 달간 진행된 결과 8만5709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청라는 인천 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서울과 공항 접근성이 뛰어나다"며 "인천 내 균형발전을 위해 청라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며 이를 위해 60만 서구민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에는 '수원가로수길'이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자매도시 프라이부르크시 방문... '수원가로수길' 명명식 참석

수원시의 국제자매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에는 '수원가로수길'이 있다.

2015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수원시와 프라이부르크시(Freiburg)는 자매결연 5주년을 기념해 상대 도시의 이름을 딴 명에 도로를 조성하기로 했고, 프라이부르크시는 2020년 10월 개통한 유로파파크 슈타디온(SC 프라이부르크 홈구장) 앞 1.5km 도로를 '수원가로수길(Suwonallee)'로 명명했다.

수원가로수길은 유로파파크 슈타디온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진입로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8일(현지 시각) 유로파파크 슈타디온에서 열린 수원가로수길 명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광고호수공원에 조성된 '프라이부르크 산책로'를 인두화로 표현한 작품을 마르틴 호른(Martin Werner Walter Horn) 프라이부르크시장에게 선물했다.

이날 수원가로수길 명명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마르틴 호른 프라이부르크시장, 슈테판 브라이터(Stefan Breiter) 재무스포르츠 부시장, SC 프라이부르크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가대표 정우영(23) 선수 등이 참석했다.

마르틴 호른 시장은 "유로파파크



▲ 슈테판 브라이터 프라이부르크 부시장(왼쪽부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우영 선수, 마르틴 호른 프라이부르크 시장이 수원가로수길 표지판 앞에서 함께하고 있다.

슈타디온과 수원가로수길이 있는 이곳은 프라이부르크의 심장과 같은 곳"이라며 "유로파파크 슈타디온을 새로 지으면서 두 개의 길이 생겼는데, 수원시와 자매도시결연을 기념하기 위해 그중 하나를 수원가로수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와 자매도시 결연을 기념해 수원가로수길을 만들어 주신 마르틴 호른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수원시에 있는 '프라이부르크 산책로'를 호른 시장님과 함께 걷는 상상을 하고 있다"고 말

했다. 이어 "빨리 수원을 방문해서 제 상상을 실현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2015년 11월 '독일의 환경수도'라고 불리는 프라이부르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꾸준히 교류·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3월에는 자매도시결연을 기념해 광고호수공원에 프라이부르크시에 있는 전망대와 똑같은 모양의 '프라이부르크 전망대'를 건립했다. 프라이부르크 전망대는 프라이부르크시 제파크 공원에 1995년 건립된 전망대(18m)와 같은 형태다. 수원시는 프라이부르크시 전망대 설계도를 바탕으로 전망대를 설계했다. 2022년 10월에는 자매결연 체결 5주년을 기념해 광고호수공원 내에 조성한 산책로를 '프라이부르크 산책로(FREIBURG SPAZIERWEG)'로 명명했다. 프라이부르크 산책로는 프라이부르크 전망대를 중심으로 약 1km에 이른다. 프라이부르크 산책로 바닥에는 프라이부르크시와 9개 자치구를 상징하는 전통회장과 수원시 상징 디자인 등을 설치했다. '환경 도시'인 프라이부르크시를 대표하는 태양광 건축물, 트램, 자전거 이미지도 볼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명명식 후 프라이부르크시청을 방문해 마르틴 호른 시장과 환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프라이부르크시의회 재무위원회를 방문해 수원시의 시정 목표 등을 소개했다.

조혜영/기자

안양시, 국전약품으로부터 장애인 위한 기부금 1천만원 받아

최대호 시장 "매우 감사...소중한 성금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

안양시는 8일 주식회사 국전약품(대표 홍중호)으로부터 관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기부금 1천만원을 전달받았다.

시는 오후 4시 30분 시청 접견실에서 (주)국전약품 홍중호 대표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기부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장애인 40가구의 생활비 지원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홍 대표는 "기부를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며 "특히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를 실천해주시는 매우 감사하다"며 "소중한 성금이 더욱 의미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국전약품은 지난해에도 안양시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금 1천만원을 전달해 저소득 장애아동 40명이 재활치료비 지원을 받았다.

1972년 설립해 올해 51주년을 맞은 (주)국전약품은 동안구 관양동에 소재한 의약품 원료 제조 및 판매기업이다.

신우용/기자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움집서 1박 2일 선사 체험, 즐겨볼까?

시흥시가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5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야영마을에서 특별한 하루밤을 보낼 수 있는 '2023 상반기 오이도 유적 1박 2일 선사캠프'를 운영한다.

오이도 유적 1박 2일 선사캠프는 6천 년 전 오이도에 살았던 신석기인의 해안가 삶을 움집에서 체험해 보는 '숙박형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다. 올해 선사캠프는 상반기(3회), 하반기(3회)를 운영하며, 회차별 어린이 가족(8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한 가족당 최대 5인이 참여할 수 있다.

캠프 일정은 △1회 5월 13~14일 △2회 5월 20~21일 △3회 6월 3~4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캠프 참여자는 대형 그물과 그물추 만들기, 선사 악기 만들기, 공원 투어, 낙조 관람 등을 통해 신석기인의 삶을 다양하게 체험해볼 수 있다. 특히 프로그램 중, 모닥불 주변에 앉아 갈돌과 갈판을 이용해 드립커피를 마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신석기인의 밤은 학부모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다.

선사캠프는 어린이(6세~13세)가 포함된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용은 한 가족당 10만원(4인 가족 기준, 1인 추가 시 2만원)이다. 선사 캠프인 만큼, 캠프 참여 시 전기 사용이 제한된다.

신우용/기자

2023 상반기 오이도 유적 1박 2일 선사 캠프. Includes details about dates,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안산시, 80C 버스노선 운행 돌입... 주민 소통으로 민민 갈등 봉합

안산시는 푸르지오 6·7·9차 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80C 노선이 신설 후 첫 운행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첫 운행을 축하하기 위해 이민근 안산시장과 한갑수 안산시의회 의원, 임명수 푸르지오 아파트 발전위원장, 주민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함께 축하했다.

그간 사동 푸르지오 6,7,9차 아파트 주민 1만2천여 명은 한대앞역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어 그랑시티 자이아파트를 경유하는 80번 노선을 조정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미 하루 3천여 명의 시

민이 이용하는 80번 노선의 경로를 변경할 경우 출퇴근 시 만차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기존 그랑시티 자이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될 수 있어 양 아파트 단지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안산시는 주민 간 공공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전문가, 버스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안산시 갈등협의회(의장 박홍식)'를 구성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대화와 토론, 전문가 자문, 버스 이용자,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진행한 후 80번 노선 대신 순환형 버스 노선을 신설하기로 최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설된 80C 버스노선은 지난 8일

부터 본오아파트를 출발해 자이아파트→푸르지오 6·7·9차 아파트→교잔신도시→중앙역→안산시외버스터미널→한대앞역→상록수역을 경유하며, 3대의 차량이 1일 30회를 운행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노선 신설 운행은 지역 사회 내 갈등을 풀기 위해 서로 양보하며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80C 노선의 시내 버스 운송수자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 증차를 통해 배차간격 단축,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최정부/기자

국가산단도시 용인, 산업단지 조성할 민간업체 노크하세요

2024년~2026년 산단 입주 물량 파악...6월 말까지 투자의향서 접수 공모

용인특례시가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선도할 산업단지를 공모 중이다.

시는 최근 정부의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대내·외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제안 산업단지 물량을 사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15일 정부부처 연구 이동·남사에 710만㎡(약 215만평) 규모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하면서 용인특례시는 전국의 이목을 끌었다. 이곳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2042년까지 5개의 반도체 위탁생산공장(파운드리)을 짓는다.

용인을 중심으로 평택과 화성 등 경기남부 지역 대규모 반도체 생산 기지와 성남시 판교의 팹리스 밸리를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 약 415만㎡에 120조원을 투자해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오는 2027년 첫 팹 가동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 중심의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에는 150개 소부장 기업, SK하이닉스 중심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는 50개의 소부장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시는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바이오·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역사회 공헌도, 에너지 자립 역량 등을 갖춘 산업단지 조성에 수요조사의 초점을

맞춘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용인시 성장관리권역 안에 산단을 조성하려는 민간기업들을 눈여겨보는 중이다.

산단을 조성하려는 사업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규정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갖춰야 하며, 다음 달 30일까지 민간제안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시 산단입지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정발전 기여도와 사업목적, 토지 확보, 입지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신청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계획으로 용인특례시 반도체 생태계는 더욱 견고하고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용인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 시행자가 이번 공모에 많이 참여해 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동행해줄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평택시, 국토부 2023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최종 선정... 국비 120억원 확보

정장선 시장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적극 동참하는 선도지자체 될 것"

경기 평택시는 국토교통부 '2023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선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평택시는 기후위기대응(친환경·탄소중립) 분야에 응모하여 최종 선정돼 2년간 국비 120억원을 지원받는다.

평택시는 2년간 총사업비 240억원(국비 120억원, 시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신재생 에너지 및 녹색건축물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산업병류수 활용 그린워터(Green

Water) 글로벌 인증 △도시숲 시민 활동 지원서비스 △시 기반 자원순환 체계 구축 △시민참여 경제활성화 플랫폼 구축 △탄소중립 통합플랫폼 구축 등 자연친화적 기술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녹색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세계적 흐름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평택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에 적극 동참하고,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문제를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혁신적인 스마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광명시, 광명동굴에서 사회적경제 ESG 나눔장터 운영

광명시는 오는 5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명동굴 인공폭포 앞 광장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ESG(환경, 사회, 기업)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를 운영한다.

이번 나눔장터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인 핸드메이드 공예품, 다육이 화분, 청소년기 속옷, 업사이클 제품 등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자리이다.

또한, 전통놀이 체험, 3D 펜 체험 등 풍성한 장터를 위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되고 지역의 농산 특산물 판매 부스인 상생장터도 함께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과 함께 ESG를 실천하기 위해 비닐과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가능함을 고민하는 사회적경제와 ESG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가 상생장터와 협업으로 더 풍성하게

운영되어 의미가 크다"며, "이번 나눔장터에 통해 온 가족이 함께 가치 소비, ESG를 실현하고 행하는 다양한 기회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용민/기자

2023 광명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Includes dates (May 13-14), time (10:00-16:00), location (Gyeonggi Expo Center), and contact info.

의성군, 저출산극복 캠페인 실시



의성군은 지난 5일 의성 어린이날 큰잔치와 함께하는 저출산극복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의성군은 저출산극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사)한자녀 더갓기 운동연합 의성지부와 함께 가족사랑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총 200여 명의 행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의성군 출산장려정책을 홍보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을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가족사랑 체험부스(가족소망을 담은 연판들기)를 운영하여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의성군은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의성군 다자녀 다정다감 가족캠프, △다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의성군은 저출산 극복 캠페인,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나가기위해 노력중이다. 앞으로도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경자기자

'중남부권 항공물류 허브'건설에 경북도민역량결집

9일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

경상북도가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허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해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다시 한 번 결집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9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해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과 시군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시군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기업인과 주민대표 등 6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위원장은 문충도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회장과 이철재 경상북도이동장협의회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청취와 소통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공항을 활용한 시군별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정치권에 지역의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문충도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

점이 되어 대구경북신공항과 공항경제권의 성공적인 건설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범식에 이어 발표된 「대구경북신공항 추진상황과 공항신도시 조성계획」, 「공항 연계 지역발전전략」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경북도는 이미 6천164세대, 1만5천410명 규모의 주거단지과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4개 권역의 공항신도시 개발계획과 항공물류육성 기본계획도 마쳤다.

그중에서도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등 항공물류기반 구축은 공항을 통한 새로운 경북도 건설 구상의 핵심이다.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항공물류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기업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의성 항공물류단지에는 통합물류센터, 중소기업 전용 공동물류센터, 신선식품 저온유통 물류센터 등을 조성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화물창출형 첨단제조기업, 국제 전자상거래 기업을 유치한다.

북부권에는 안동 바이오 일반산단과 신규 지정된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 저온유통물류센터를 건설해 백신산업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

서부권에는 경박단소형 IT 첨단제품 전용 공동물류센터와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위한 상용 화주 터미널을 건설해 더 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한다.

남부권에는 자동차부품 수출입 통합물류센터를 건설해 인근 자동차 완성차 생산 공장의 부품 공급기로서 입지를 강화한다. 아울러,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부품산업을 전기차와 도심항공교통(UAM)으로 확장, 전환을 유도해 모빌리티 산업 환경의 대변혁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 시군과 지역 기업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신속한 건설뿐만 아니라 신도시와 항공물류단지, 항공클러스터 등 공항경제권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협력해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허브, 대구경북신공항을 제대로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본격 시동



울진군은 4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울진군의 발전 방향과 이에 따른 ▲국도 36호선 4차로 확장 포장 ▲남북 10축 영역~삼척간 단절된 고속도로 연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만남은 울진군수가 지난해 9월 국토부 주관으로 개최한 '제7회 항공레저 FESTA(페스타)'에 참석한 국토부 제2차관과의 인연으로 통화하면서 방문이 이뤄졌다.

한편 울진군은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위기 속에서 2만명 이상의 고용 유발과 7조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필두로 관광객 1000만 유치를 앞당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본격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울진군의 낙후된 도로망에 대해 공감하며 소외된 지역의 접근성에 대한 제고를 위해 우선 도로 분야의 상위계획인 '국가 도로 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와 자체 용역 등을 통한 충분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욱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돕겠다"라고 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민선 8기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대형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역교통망 계획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 건의 등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미술관이 된 상주 경천섬, 야외조각전

자연(自然)과 조화롭게 노닐다 in 경천섬

상주시에 있는 경천섬 야외조각전은 예술자원과 자연의 조화를 통해 경천섬 관광홍보를 위해 상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조각가협회 경북지부 주관으로 5월 5일부터 경천섬 일원에 열리고 있다.

전시는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북의 유명 조각가들의 조각품 20점이 전시되며 경천섬 일대가 미술관으로 탈바꿈한다.

대표적인 작품에는 이창호의 [수달가족의 경천섬 나들이], [꼬꼬네 가족나들이] 박종혁의 [티라노vs코로나], 엄두용의 [상생] 등 자유분방하고 개성 넘치는 작품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야외조각전은 근대적 미술공간에서 벗어나 자연과 예술작품이 공존

하는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관람할 수 있는 야외조각전은 지역사회 문화공간이 될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포토존을 제공한다. 이번 조각전은 낙동강권역 관광랜드마크인 경천섬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상주시장(강영석)은 "경천섬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학 전망대, 회상나루와 함께 야외에서 자유롭게 조

각전도 감상하며 경천섬의 비경을 온몸으로 느끼시길 바란다"라고 전시 소감을 밝혔다.

김동현기자



「부산의 맛」, 독일 함부르크에서도 통했다!

- 글로벌 미식도시 부산! 케이-푸드(K-food)를 넘어 이제는 비-푸드(B-food)!

- '글로벌 미식도시 부산' 주제로 부산 대표음식의 역사와 우수성 알려

부산시는 지난 5~7일까지 제834회 함부르크 개항축제와 연계 개최한 「2023대한민국-부산페스티벌에서 1백만 명의 관람객에게 '글로벌 미식도시 부산' 매력을 알렸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페스티벌 행사장에 「미식도시 부산 홍보관」을 운영, 부산 대표음식인 돼지국밥 밀면 등 8가지 음식 전시, 이 음식의 탄생 비화와 조리과정을 담은 생생한 영상을 3개 코너로 제작 상영했고 또, 이를 QR 코드를 이용, 모바일로 볼 수 있도록 '내 손안의 부산음식'을 안냈다.

또한, 페스티벌 첫날인 현지시각 5일에는 한국 사람이라면 잔치에서 뺄 수 없는 음식인 '떡'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케익'을 제작해 현지 관람객들에게 나눠주며, 좋은 날에 이웃과 나누어 먹는 한국의 정(情)을 함께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했다.

특히, 현지시각으로 5일 저녁에 열린 유력인사 초청 리셉션에서 부산 셰프(부산롯데호텔 소속 김봉곤, 최육진 씨)가 만찬과 비(B)-푸드 테이블을 통해 유력인사 70여 명과 현지 언론인 등에 '글로벌 미식도시 부산'의 '맛'을 알렸다.

만찬시 부산우수식품 인정받은 제품을 이용한 부산커리부어스트, 부산어묵샐러드 등 부산음식과 함부르크 현지 메뉴를 재해석한 다양한 요리를 제공, 이들에게 유럽 최고 레스토랑을 넘어선

맛이라는 찬사를 받아 비(B)-푸드의 저력과 세계시장에서의 성장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아울러 행사기간(5.5~5.7.) 3일 동안 함부르크한인회와 협업하여 오징어게임 포토타임, 부산엑스포 알리기 사회관계망서비스 이벤트를 열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달고나'를 맛보며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현지시각으로 6일에는 '비(B)-푸드쿠잉클래스'를 열고 부산 셰프, 독일총영사관 셰프가 현지인, 재독교포 2~3세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부산우수식품을 주제로 새롭게 개발한 음식을 시연하고, 이들과 함께 맛보기도 했다.

특히, 이번 '비(B)-푸드쿠잉클래스'는 참가 신청 5분 만에 마감되는 기록을 세웠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현지인들의 부산음식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 이들에게 고국의 맛을 제대로 느꼈다. '부산의 맛을 현지에서



꼭 경험하고 싶다'는 평가를 받아 비(B)-푸드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자리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음식은 한국전쟁과 개항을 통해 발전해서 '부산의 맛'에 담긴 한국적인 정서와 이야기가 풍부한다. 이 점이 이번 페

스티벌 관람객들에게 제대로 통했다"라며, "세계시장에서 부산의 맛을 알리려는 이러한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인다면 머지않아 세계인들의 맛있는 한끼를 부산음식이 책임지는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송종진기자

구미시장, 기업 현장 방문으로 지역 경제 답을 찾는다

60년 전통의 벨벳 장인기업 (주)영도벨벳 방문

김장호 구미시장은 8일 구미국가산단에서 60년 이상 벨벳섬유 생산을 하고 있는 (주)영도벨벳을 찾아 생산라인 등을 둘러봤으며 류병선 회장, 이충열 사장, 전상규 노조위원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 근로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간담회를 열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지역기업 방문은 기업과 근로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과 기업에 답이 있다'는 김장호 시장의 뜻에서 시작했으며, 앞으로 지역기업 및 근로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주)영도벨벳은 1960년 창업이래 벨벳섬유라는 한 분야에서 6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대표 장인기술 기업으로, 고밀도 패션의류 소재 및 가구·침장용 홈패션 소재의 세계 벨벳 시장을 선두하는 기업이다.

특히, LCD패널 성능을 결정하는

LCD 러빙포 개발에 성공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자동차용 복합소재 개발 등 첨단소재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아울러, 금탑산업훈장(2019), 3천만 수출탑(2010) 등 오랜 시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지역에 기탁하는 등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도 솔선수범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기업 역량을 높이고 있는 류병선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근로자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최근 섬유 관련 기업 및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도 정부와 함께 섬유산업 지원 및 육성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경북도, 전국최초 사과스마트팜 모델 공개!

안동 임하면에 ICT 융합 첨단 과원 시범 조성... 사과산업 대전환 촉발

경북도는 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유관기관, 지역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에 1ha 규모로 시범 조성된 '전국최초 사과 스마트 팜' 모델을 공개했다.

디지털 기반 첨단산업으로 농업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의 또 하나의 야심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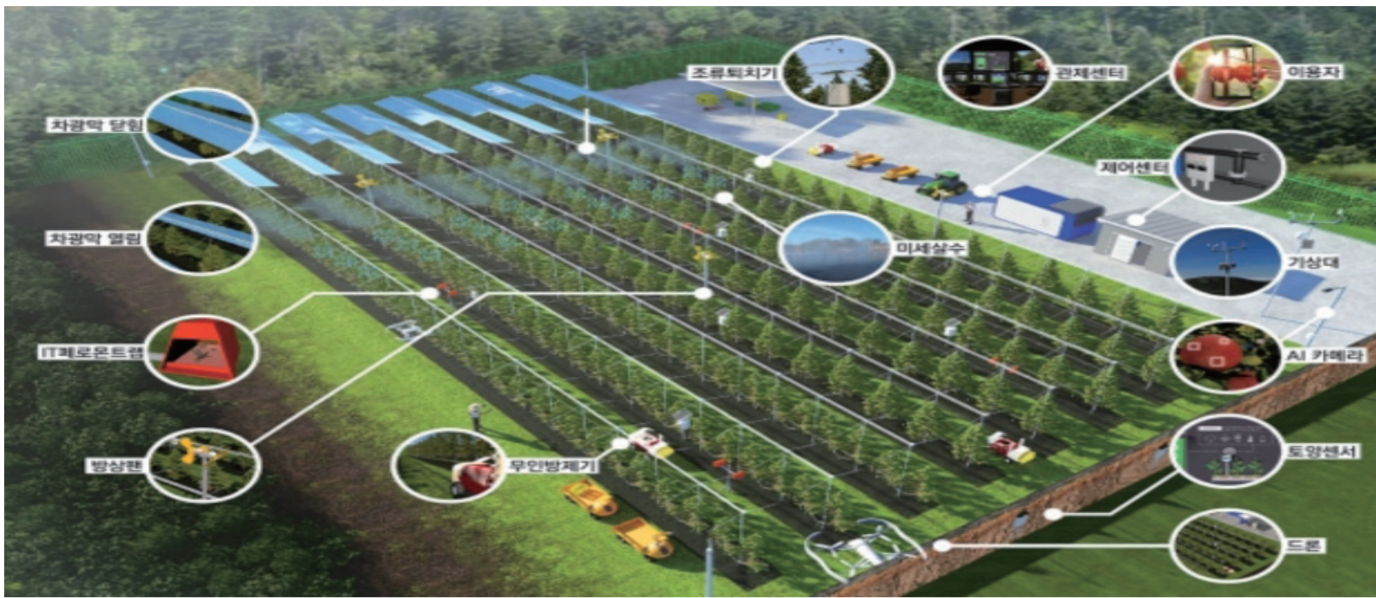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노동수급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적지 복산, 지속적 시장개방 압박,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사과 산업은 위기를 맞고 있다.

경북도는 노동과 경험에 의존하는 관행 농업으로는 그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사과 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스마트 농업이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에 품목에 편중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선보인 사과 스마트 팜은 실내용 시설을 벗어나 농지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동력이 훨씬 많이 요구되는 노지품목으로서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사과 스마트 팜은 총 61ha 규모의 국가공모사업인 '안동 사과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단위사업으로 별도 조성된 표준형 모델이다.

1ha의 면적에 최첨단 ICT 과학기술을 활용한 점적 관수·관비 자동화 시설, 에어프로그, CCTV 등 생육관



▲ 사과 스마트 팜 조감도 :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655-2 번지 예정농원

리 시스템과 미세살수시설, 자동 방조망, 열상 방상팬 등 재해방지시설, 병충해 예찰 장비인 IT페로몬 트랩, AI 카메라 등 다양한 첨단시설과 장비가 설치돼 있다.

데이터 센터와 과원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생육정보, 기상데이터, 병해충자료를 AI를 기반으로 수집·분석·가공되고, 다시 농가로 제공되는 환류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관제시스템으로 과원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장비들을 가동시킬 수 있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동원한 농약살포, 병해충 예찰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사과 스마트 팜 표준형 모델 등 '안동사과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생산성과 상품화율은 각각 약 25%와 10% 증가하고, 노동시간(관수·관비)과 병충해 피해는 약 54와 50% 정도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초 기

대대로 비용은 줄고 생산성은 증가했다는 판단이다.

경북도는 성과가 검증된 만큼 사과 스마트 팜의 빠른 확산을 위해 농민사관학교와 한국미래농업연구원을 통한 농가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ICT 융합 시설장비 설치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성군 사곡면 일원에 82ha 규모로 조성될 마늘 스마트단지 등 노지스마트 농업 적용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별농가의 과원상황에 맞는 보급형 스마트 과원 모델 개발을 위해 데이터센터에서 AI가 분석하고 의사결정하는 결과에 따라 경영하는 과원과 AI분석 결과를 참고로 농업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하는 과원을 비교 운영하는 등 표준영농기술을 정리하기 위한 다양한 실증연구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안동사과 노지스마트농업 시

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선정된 국비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45억원을 투자해 61.5ha에 이르는 스마트 생산·유통 단지를 조성하고 데이터 센터 건립, 실증단지 설치 등 전국에서 유일한 노지분야(사과) 스마트 농업 거점 모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양한 ICT 기반 스마트 영농시설과 첨단 장비들을 두루 살펴보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 후 "노동집약적 전통농업으로는 경영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며 농업대전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속형 보급형 모델을 개발하고 일반과수원에 스마트 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 올해도 같이 어울려요!

봄을 만나, 산나물 파티!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가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4일간 영양군청, 영양전통시장, 일월산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영양산나물축제는 청정 영양 산나물의 맛과 정취를 한껏 즐길 수 있는 영양군 대표 축제로서 지난 세월동안 수많은 관광객에게 건강한 기쁨을 선사하면서 전국 대표 축제로 발돋움 해왔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영양군청과 영양전통시장 일원에 축제의 장을 열어 영양의 자랑거리 산나물과 여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한다.

몸에 좋은 산나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산나물장터, 구경꾼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산나물 테마거리, 초록빛 인생샷을 건져갈 수 있는 산나물 포토존, 축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맛있는 먹거리가 넘쳐나는 산촌 먹거리촌 등 새롭고 알찬 즐길거리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단순히 축제장을 구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나물 채취체험, 반려동물 문화축제, 비대면 마라톤대회, 영양산나물 전국가요제, 영양고유 사투리경연대회, 별이 빛나는 밤에 콘서트 등 가까이에서 청정영양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추억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올해 5월도 영양에서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신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알찬 산나물축제를 준비 중이니 꼭 축제장을 방문 하셔서 축제를 즐기시기를 바란다" 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경북도 최초 청년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영주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50만 원까지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경북도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집 운반·포장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주청소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을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해 영주시로 전입 또는 이사해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세대주(만 19~39세)이다.

신청은 12월 20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 실비 지출 증빙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등을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으나 매수(임차)인은 청년 세대주 본인일 경우만 신청가능하다. 단,

부모 소유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영주시에서 이사 및 전입하는 외지 청년들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관내 청년인구 증대 효과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취약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영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문화원,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유적지 탐방에 참여하세요~"

봉화문화원이 오는 26일까지 문화유적지 탐방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문화유적지 탐방은 오는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봉화의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애乡심을 높이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봉화문화원은 지난달 24일 물야면에서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년 봉화문화원 문화유적지 탐방'의 첫 번째 탐방을 진행했다. 이날은 복자리 지림사의 '마애여래좌상'과 풍산 김씨 집성촌으로 한옥이 즐비한 '오룩창

마 전통마을' 등을 탐방했다.

5월 문화유적지 탐방은 오는 31일에 시행되며 봉성, 법전, 춘양 일원의 유적지를 답사할 계획이다. 봉화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만 원이다.

김희문 봉화문화원장은 "멀리 있는 문화유산은 잘 알면서도 가까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화원의 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안동시, 『제50회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폐막 '천년 민속의 울림으로 세계화 도전한다'

권기창 시장 "민속의 보편적 가치 바탕으로 세계적 축제 도약 최선"

『제50회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가 모디684 앞 민속판무대에서 8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968년 처음 시작한 반세기 역사의 안동민속축제를 탈춤축제와 과감히 분리하고 축제의 명칭과 내용도 모두 획기적으로 변신했다. 안동 민속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생생하게 세계화로 이끌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원도심 400m 도로를 축제장으로 하는 거리형 축제로 개최해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이번 축제는 공감각적 박진감과 역동성을 가진 대규모 민속놀이인 차전놀이와 뉓다리밟기를 주요 테마로 축제의 구심력을 강화하고, 전국 유수 단체의 초청공연과 자매도시 공연, 각종 무형문화재 공연, 경연과 이색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채로움을 더했다. 이 밖에도 민속놀이 체험, 특산품·전통주 전시판매, 음식의 거리 야외포차 등 다양한 연계행사로 축제의 여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계절 축제 가운데 봄 축제로 첫 출발한 이번 축제는 개막부터 폐막까지 시민 중심의 참여형 축제

로 개최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기존들을 완전히 탈피해 별도의 내빈 인사 등 의식행사와 내빈석 등을 없애고, 차전놀이와 뉓다리밟기 등 주요 테마로 관객들의 몰입감을 이어가도록 했다. 알찬 축제 콘텐츠만으로 관객들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려는 새로운 시도였다.

이번 축제는 성황제, 서제, 공민왕 추모 헌다례 등 안동 민속의 진수를 선보이며 대장정의 막을 열었다. 무형문화재 시연으로 안동을 대표하는 하회별신굿탈놀이, 안동차전놀이, 안동뉓다리밟기, 저전동농요 등 내 중목이 축제 일정에 맞춰 펼쳐졌다. 지역 풍속으로 양로연, 안동제비원정주풀이 공연이 열렸고, 풍물놀이에는 읍면동 시민화합한마당&차전대동놀이가 열린 분위기 속에 흥겹게 펼쳐졌다.

주례 시연, 전통혼례와 기제사 시연, 안동상여소리 등이 열렸고, 민속놀이 체험활동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 밖에 안동사투리 경연대회, 실버가요제, 새봄맞이 음악회,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버스킹 공연, 청소년한마당, 힘 민속판 나이트 등 다양한 중목이 축제 기간 중 다채롭게 펼쳐졌다.



축제 기간 중 시민과 관광객들은 원도심에 모여들어 지역의 민속놀이와 행사를 체험하는 한편 안동의 관광 명소를 둘러보며 축제의 흥을 만끽했다. 사흘간의 강우로 다소 아쉬움이 남았지만 도심의 상가도 오랜만에 활기를 띠어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축제 마지막 날인 5월 8일 폐막식에서는 '시민화합한마당&차전대동놀이' 시상식이 열렸다. 3일간 열린 열린 경연대회 최우수상에는 풍산읍, 용상동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권기창 안동문화원장은 『제50회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를 찾아오신 많은 방문객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축제 반세

기를 맞아 성공적인 봄 축제로 나아가는 기틀이 되도록 객관적인 평가와 보안을 통해 지역성이 있는 콘텐츠를 선정하고 축제의 질을 높여 안동문화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보여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멋과 정과 흥이 있는 안동에서 제50회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라며 "이어 온 50년에 더해 나아가길 새로운 50년을 밝히며 안동 민속의 보편적 문화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적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기본 덕목 “친절” 남원시, 시민칭찬 받은 친절직원 격려



남원시는 4일 오전 시장실에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의 칭찬을 받은 친절직원 8명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한 칭찬 릴레이에 선정된 직원 2명을 격려하고, 격려의 의미로 소정의 남원사랑 상품권과 장미꽃을 전달했다.

시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 게시글 일부를 살펴보면 "격무부서에서도 항상 밝은 얼굴과 따뜻한 말로 응대해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하면서 행복감을 느꼈다."라며 사연을 남겼다.

이외에도 친절직원 모두 업무처리 과정에서 각각 민원인들에게 친절하

고 좋은 인상을 안겨 주며 시민 및 직원들의 칭찬을 받았다. 접수된 칭찬사연은 친절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분기별로 칭찬받은 직원을 시장이 직접 격려하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친절은 공무원이라면 가슴속에 간직하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하는 기본 덕목이라 할 수 있다"며, "시민에게 감동 주는 서비스로 칭찬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격려하며 지역사회 전체에 친절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순천시, 6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처 개편

순천사랑상품권이 오는 6월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사용처가 개편된다.

시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이 개편됨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은 순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등록을 취소하고 1인당 최대 보유 한도액은 기존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순천사랑상품권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할 때에는 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는 정책발행 가맹점으로 전환하거나 해지를 원할 경우 등록 취소할 계획이다.

이승준/기자

NHN 광주연구개발센터 개소...인공지능 중심도시 가속

광주광역시시는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수행사인 엔에이치엔클라우드(NHN CLOUD)의 연구개발센터가 8일 상무비즈니스센터 4층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동훈 엔에이치엔클라우드 대표, 김상훈 엔에이치엔아카데미 부학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연구개발센터는 820㎡ 규모이며 60여명이 근무한다. 앞으로 상주 직원이 180명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센터에는 본사 파견 인력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개소한 엔에이치엔(NHN) 아카데미에서 7개월 간 웹개발자, NHN 인증과정을 수료해 현업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지역에서 육성된 전문인력과 함께 근무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분야 교육과 채용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센터는 광주시와 엔에이치엔클라우드 간 인공지능 분야 협력의 구심점으로써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개발센터는 지역거점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게임-핀테크 등 엔에이치엔(NHN) 그룹사 개발 업무뿐만 아니라 세계 클라우드 시장으로 진출을 위해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외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하는 국산 AI반도체 클라우드 전환, 인공지능(AI) 및 머



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의료영상 분석·진단 지원 서비스 개발 등 인공지능(AI) 응용기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엔에이치엔클라우드 관계자는 "이번 광주연구개발센터 개소를 통해 지역거점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노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향후 광주연구개발센터는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NHN아카데미 광주캠퍼스'와 더불어 지역사회 정보기술 인재양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엔에이치엔클라우드와 함께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활용률을 높이고 지역의 인프라와 융합해 상승효과가 나타나도록 연구개발센터 운영 등에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광주는 명실상부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 더욱 확고해지고 그 길에 엔에이치엔클라우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병수/기자

전북도, 가족들이 함께 떠나기 좋은 농촌여행지 8곳 추천!

전북 농촌관광 플랫폼 '참참'이 추천하는 여행지 할인받아 이용하고, 숙박권 선물받자!

전라북도도와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월 농촌 여행지를 추천하는 '이달의 기획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9일 밝혔다.

첫 기획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농촌 여행을 찾는 소비자를 겨냥해 '가족들이 함께 떠나기 좋은 여행지' 8곳을 준비했다.

선정된 가정의 달 여행지는 ▲정읍 달고운정사교마을, ▲김제 수류산골마을, ▲진안 외사양마을, ▲무주 무풍송지마을, ▲무주 앞섬마을, ▲고창 강선달마을, ▲부안 청호수마을, ▲부안 뽕디리레농원이었다.

5월 한달동안 추천 여행지를 방문하면 체험비 50%, 숙박비 30% 여행경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후기를 남기는 소비자 10명에게는 추

첨을 통해 농촌 숙박권을 제공한다.

농촌여행 정보와 숙박·체험, 기획상품, 프로모션 등 자세한 정보는 전라북도 농촌여행 플랫폼 '전북농촌여행 참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축제가 전라북도 전역에서 펼쳐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방문객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며, "전북 농촌여행 플랫폼인 '전북농촌여행 참참'을 적극 이용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최근 여행 수요 증가함에 따라 농촌여행 플랫폼인 '전북농촌여행 참참'을 활성화하고자 콘서트, 코컬관광 등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남출/기자



'15만명 방문' 제25회 함평 나비대축제 "내년에 또 만나요"

'봄을 여는 소리, 함평나비대축제'를 주제로 한 '제25회 함평 나비대축제'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방역 완화 등 일상 회복에 발맞춰 열린 이번 축제는 각종 행사와 풍성한 대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의 호평 속에 마무리됐다.

함평군은 "제25회 함평 나비대축제가 지난 7일 엑스포공원 중앙광장에서 열린 폐막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봄을 여는 소리, 함평나비대축제'란 주제로 개최된 올해 나비축제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지역축제로, 총 15만375명의 입장객 수를 기록했다.

입장료 판매액은 약 5억8천500만 원을 기록했고, 군민이 참여한 농·특산물 판매장은 1억6천600만원의 수익을 거뒀으며, 각종 판매장과 음식점 매출은 3억8천여만원, 부스 임대료 수익은 3천만원 등을 기록하며 총 4억여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

20종 25만 마리의 나비는 물론, 사피니아 등 다양한 초화류와 40여종에 이르는 다채로운 공연·체험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을 맞이했으며, 올해 운영을 개시한 친환경농업관은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농작물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관람객의 인기를 끌었다.

특히 최근 금값 상승으로 입소문을 탄 '황금박쥐상'은 올해 나비축제의 최대 스타로 떠올랐다. 순금 162kg과 은 281kg으로 제작된 황금박쥐상을 보기 위해 나비축제 기간 중 황금박쥐생태전시관에 1만5천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40여개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역시 인기 만점이었다. 매년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야외 나비날리기는 올해도 장사진을 이뤘으며 '동물 먹이주기 체험', '미꾸라지 잡기 체험'도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속에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했다.

아울러 올해 리모델링을 마치고 공개된 나비곤충표본전시관은 나비곤충표본 총 354종 4천326점의 나비곤충표본과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VR체험 등으로 인기를 누렸다.

각종 공연과 문화·예술행사도 풍성하게 열렸다. 인기 가수 김연자가 출연한 개막식 축하공연, 가수 경서예지, 미스터 트롯 장민호, 불타는 트롯맨 이수호의 공연과 EDM 파티를 비롯한 남도 노동요, 세계적인 복화술사 안재우 공연, 신(新)뽕파전 마당극 공연 어린이날 특별공연, 함평나비 공든벨과 지역문화예술 공연 등 총 20여개의 풍성한 문화예술 공연이 어른들을 울렸다.

특히 어린이날 연휴 주간 연일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관광객이 줄지어 방문했으며, 지난 6일 오후 함

광주광역시, "5월 오후 3~6시 놀이시설 사고 주의하세요"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은 놀이시설, 자전거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생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정의 달인 5월은 가족 나들이로 유원지나 놀이시설을 많이 찾는 만큼 놀이시설에서의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이다. 실제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광주지역 어린이 및 유원지 놀이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 중 약 19%(총 37건 중 7건)가 5월 발생했다.

특히 2020~2021년 놀이시설 사고의 절반 이상(57.1%)이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놀이시설 이용자와 보호자의 관심과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는 끈이 달린 옷이나 슬리퍼 등을 착용하거나 장난감 등을 소지하지 않고, 놀이기구별 안전요령을 잘 지켜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영유아는 놀이를 마칠 때까지 보호자의 동반 하에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자전거 사고 또한 5월에 가장 많았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광주지역에서 총 309건의 자전거 사고로 26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5월에 약 13%(사고 41건, 부상 34명)가 발생했다.

자전거 사고의 대부분(80.6%)은 도로에서 발생했고, 운전부주의 또는 안전수칙 불이행이 사고원인의 63.8%를 차지했다. 자전거 타기 전 기본 점검과 보호장구 착용 등을 습관화하는 것은 물론 음주 후 절대 자전거를 타지 않고, 이어폰과 휴대전화 등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자전거도로 이용과 우측통행 등 자전거의 통행원칙과 통행방법 등을 잘 준수해야 한다.

신동하 안전정책관은 "일상의 소중한 행복은 안전이 밑거름될 때 가능하다"며 "생활 속 안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솔선해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의 안전과 소중한 추억을 함께 챙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김희수 진도군수 "인구시책 발굴, 지역소멸 위기 대응"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진도군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인구감소 대응 기본·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고회에서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비전,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진도군 실정에 맞는 중장기 정책과제 발굴과 세부 사업을 제시했다.

특히 김희수 진도군수와 전체 실과소장 등이 참석해 일자리·주거·의료·교통·문화·교육 등 분야별 맞춤형 정책과 진도군 인구 현황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군은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토의 결과를 반영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오는 6월말까지 전라남도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진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진도군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투자계획 수립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시행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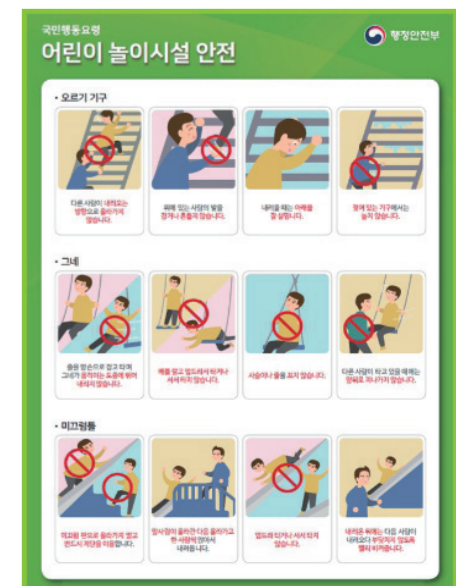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군 지역 특색을 잘 반영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 시책을 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에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5억 원을 확보하고 전남도 인구정책 평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윤경호/기자



전남도, 태국·베트남 시장개척단 1천만 달러 수출계약

무안군, 워커블시티 무안 선포식 및 제1회 무안 산책로 걷기대회 개최

유망기업 15곳 참여해 수출계약·협약 20건...658만 달러 수출상담

전라남도는 세계경기 침체 위기 극복과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6일까지 10개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에 파견한 시장개척단이 총 1천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재)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전남도가 파견한 전남 수출유망 15개 기업은 구매자 발굴 가능성, 수출 준비도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지난 한 달 동안 잠재 구매자 발굴과 매칭을 3회 이상 반복하면서 수출 거래 성립 가능성을 높였다.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15개 기업은 76개 현지 구매자와 1대1 상담을 통해 5건 630만 달러 수출계약과 15건 395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MOU)을 하고 658만 달러 수출 상담을 추진했다.

2일 태국 방콕 수출상담회에서 (주)해농이 김, 미역 200만 달러 상당 수출계약을 했다. 또 해농이 추가

로 50만 달러, (주)에스에프시가 비이온계면활성제 10만 달러, (주)에이치비가 화물운반차 3만 달러 등 총 63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4일 베트남 하노이 수출상담회에선 완도삼이 2건 220만 달러 상당의 전복과 해조류, 완도물산이 200만 달러 조미김, (주)푸드파파가 10만 달러 상당의 떡류 수출계약을 했다.

이밖에도 해농이 김 20만 달러, 완도고금바다(주)가 매생이 전복죽 2만 달러, 완도물산이 조미김 90만 달러, 푸드파파가 떡류 20만 달러, (유)호인이 네일 제품 10만 달러,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유기질 비료 30만 달러, 맑고맑고따뜻한협동조합이 유자주스 10만 달러, (주)밥리에프엔디가 밥버거 50만 달러, 바다손애(주)가 해초 샐러드 10만 달러, 에이치비가 화물운반차 10만 달러 등 총 332만 달러 수출협약을



했다. 또 부경테크는 3륜 전동차, 유성산업(주)은 친환경 어망, 논다는 반려동물 간식을 출품해 동남아시아 진출을 타진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지속적인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식품

전남 무안군은 오는 5월 13일 남약 자전거공원 일원에서 걷기 좋은 도시 '워커블 시티 (walkable city) 무안'을 대내외 선포하고 군민이 함께하는 제1회 무안 산책로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웅크렸던 군민들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고 아름다운 남약 수변공원의 정취를 누리며 함께 걸을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10시 삼향읍 주민자치센터 소속 동아리의 신나는 통기타, 오카리나 연주 및 합창 등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퍼포먼스와 함께 워커블시티 무안 선포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치매 예방 상담, 우울증 검사 등 건강 체험 및 건강정책 홍보관, 안전정책 홍보관, 축제 및 관광사업 홍보관 등 다양한 부대 부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며, 무

정광남기자



화순군, 필리핀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 체결

영농철 일손 확보를 통한 돈 버는 농촌 조성

화순군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필리핀 제너럴 나띠비다드시·실랑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필리핀 현지를 방문하여 4, 5일 양일에 걸쳐 제너럴 마메트로 나띠비다드 시장과 실랑 시장 등 상호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필리핀의 농업 교류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화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지난해 9월 13일 캄보디아와 업무 협약을 맺었고, 지난 4월 10일 상반기 계절근로자들이 도착해 성과로 이어졌다.

화순군은 농업 분야에 외국인 계



절근로자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어 단기간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인력난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다문화 팀을 구성하여 필리핀 계절근로자 입국 시 원활한 의사소통에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이번에 체결된 업무 협약에 따라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은 영농철인 가

윤경호기자

Everywhere Green Life, H: KOGAS
KOGAS가 만들어가는 Feel·Feel·必

KOGAS가 FEEL합니다

더 깨끗한 세상을 위한 KOGAS의 ESG

KOGAS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행복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빗속에도 많은 인파 몰려

26종 프로그램 진행, 전통 대나무 바다 낚시·전복 따기 인기

2023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가 지난 7일 폐막식을 끝으로 나흘간의 축제 일정을 마쳤다.

이번 축제는 '치유의 바다를 낚다, 청정 바다를 먹다!'라는 주제로 3개 분야, 26종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축제 첫날부터 비가 내려 일부 프로그램이 중단됐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열린 첫 축제인 만큼 굵은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을 찾았다.

'최현우 마술 쇼'와 '청해 트로트 가요제'는 관객석이 모자랄 정도로 관람객으로 가득 찼으며, 축제 주최측에서는 우비와 타월 등을 준비해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전통 대나무 바다낚시'와 '전복 따러 Go Go', '223m 해조류 치유 김밥 만들기' 등 완도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참가 신청 대기 줄이 길 정도로 성황이었다.

완도산 톳을 첨가한 '223m 해조류 치유 김밥 만들기'에는 200명이 넘는 군민과 관광객이 손을 보탰으며, 223m나 되는 김밥이 끊기지 않고 완성돼 들어 올려졌을 때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환호성이 터졌다.

이 외에도 전통 노 젓기 대회, 전통 김 뜨기 체험 등이 진행됐으며, 완도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들을 선보이는 '청해진미 치유 푸드관'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한편 지난 5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평균 220mm의 비가 내려 노화, 보길, 소안, 금일 지역의 제한급수가 해제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축제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비가 내려 축제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양영윤기자

부산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오는 6월까지 수입 수산물 업체 총 1,310곳을 대상으로 실시



부산시는 오는 6월까지 부산 시내 수산물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수입 수산물 업체 총 1,310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등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명예감시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실 있는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며, 중점 점검

품목은 수입물량, 주요 수입국, 위반 실적 등을 고려해 ▲ 활참돔 ▲ 활가비리 ▲ 활우렁छ이다.

아울러, 시는 특별점검과 병행해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 가리비 ▲ 방어 ▲ 우렁छ이 ▲ 부세 ▲ 전복 등 5개 품목이 추가됨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국진 부산시 수산진흥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수입 수산물 품목에 대해 철저히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겠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종진기자

대전시,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 순찰·단속 실시

5.23.까지 금강 및 3대하천... 불법 낚시, 캠핑, 노점 대상

대전시가 금강 및 3대 하천의 이용량 증가에 따라 불법 낚시, 장기야영, 노점 등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나선다.

대전시는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하천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장기 야영, 낚시, 도박 등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시작했다.

3대 하천의 낚시행위 금지구역으로는 갑천의 경우 금강 합류점에서 모세골교까지, 유등천은 갑천 합류점에서 만성교까지, 대전천은 유등천 합류점에서 옥계교까지다.

낚시행위는 1인당 1대이며, 지렁이 등 수질오염을 수반하지 않는 미끼를 사용할 시에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의 경우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구 흑석동 갑천 상류의 노루벌, 상보안 등과 같은 유원지의 경우 방문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이 장기간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하천을 오염시키고 야영을 하고 있어 집중·순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유지 하천을 불법 점용하여 이뤄지는 무단 경작, 노점상과 도박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순찰 및 단속을 추진한다.

경미한 행위일 경우 관련 법 홍보와 계도를 우선 진행하며, 중대한 사항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

분한다는 방침이다.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코로나 방역 활동 해제 이후 시민들의 하천 내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쾌적한 하천 환경에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정자교 유사 사고 예방" 은평구, 교량 32곳 전수 점검

기술직 직원, 외부 전문가 투입해 교차 점검...주요 결함 발견되지 않아

서울 은평구는 최근 일어난 분당 정자교 붕괴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자 관내 모든 교량 32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선제적 안전 점검으로 재난 사고를 방지하고자 나선 조치다. 정자교 형태와 유사한 교량 3곳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나머지 전체 교량도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1~2차로 나눠 진행했다. 먼저 지난달 13일 도로과 전 공무원을 투입해 1차로 점검하고, 이후 토목구조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2차로 확인하는 등 교차 방식 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 요소를 다각도로 살폈다.

하부 구조물인 교대와 교각 균열·파손 등을 확인하고, 정자교와 유사 구조인 캔틸레버부 붕괴 위험이 있

는 곳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캔틸레버(Cantilever)는 보도부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이 없는 구조를 말한다.

전수 점검 결과 미세균열, 퇴적을 적지 등 경미한 사항 외에 처짐, 철근 노출 등 주요 구조적 결함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배수구, 신축이음 유간 오물퇴적 등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조속히 정비해 교량 장기공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점검한 교량은 총 32개로 와산교, 신흥상교, 레인보우교, 지축교, 상림교, 삼각산교, 진관교, 만남교, 구파발교, 폭포동교 등이다. 구는 점검과 함께 지난 3~4일 도로과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자교 현장 견학도 다녀왔다. 붕괴 현장을 살피면서 관내 교량과 비교

해 보고 붕괴 원인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점검에 적극 반영해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구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대한 점검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교량 외에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점검 대상이 아닌 관내 도로시설물 98곳도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태원 차사, 도로 보도육교 처짐 등 중대 재해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듯 안전 문제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안전 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익산시, 농촌지역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 강화

익산시는 농촌지역에서 영농부산물과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으로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각종 지원사업 제재 및 강력한 단속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해충 방제를 이유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지역 불법소각은 산불을 유발하여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며,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는 영농폐비닐과 농약병병 수거보상금

지원,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영농폐자재 수거사업 등 농가에서 직접 처리가 어려운 사업들을 다양하게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대대적인 집중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불법소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농민공익수당 지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과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불법소각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인천시 연수구, 목욕장업 영업소 대상 수질·위생 점검 실시

11일부터 16일까지 10곳...레지오넬라균 등 검출 여부 검사

인천시 연수구는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지역 내 목욕장업 영업소 10곳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순환식 욕조수를 사용하는 영업소를 대상으로 원수, 욕조수 및 먹는 물의 채취하여 레지오넬라균 및 대장균군 등의 검출 여부, 잔류염소 기준충족 등을 검사한다.

또한 업소 내 위생수준 향상을 위

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 이행 여부 및 시설기준 충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수질·위생 기준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의거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수질 개선을 위한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영업주·종사자 대상 현장 위생교육을 실

시해 미흡한 위생관리의 효율적 개선과 영업주의 자율 위생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공중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목욕장업 정기 점검 및 상시 지도·점검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경기도, 민관이 함께하는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가 오는 10일부터 산업 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2023년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합동점검을 개시하고, 첫 시작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신축 현장을 찾는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해 노동안전지킴이 104명을 도 전역에 배치하고 산업 재해에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 건설 현장 등에 '찾아가는 현장점검'과 지도·개선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도, 시·군과 사업 수행기관이 함께 노동안전지킴이의 하루를 따라가 보면서, 도내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계도 활동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기관별 사업의 효율적

인 관리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도는 연말까지 매달 순차적으로 시·군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식 도 노동안전과장은 "노동안전지킴이는 도 산업 재해 예방 안

전망의 든든한 기둥"이라며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GOYANG SPECIAL CITY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Goyang

고양특례시

충남도 '국비 확보·현안해결' 지원요청

김태흠 지사, 해수부 등 4개 중앙부처 장관 만나 도정 현안 정부예산 반영 건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도정 현안에 대한 관심과 내년 정부예산 10조 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장관을 잇따라 만나는 강행군을 펼쳤다. 김 지사는 8일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방문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가장 먼저, 해수부를 찾은 김 지사는 조승환 장관과 면담을 갖고 도 바다역 조성시범사업(10억),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40억), 최첨단 해양허브(관광+과학) 인공섬 조성(5억) 등 신규사업 8건 81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만난 김 지사는 K-헤리티지 관광벨리 조성(20억), 공주 백제문화촌 조성(15억),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지원(154억) 등 도정 현안 5건 209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산자부에서는 장영진 1차관에게



자율주행 모빌리티 부품기술 상용화(에타선정),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 생태계 구축(에타선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국가 정책화) 등 4건에 대한 국가정책지원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과기부에서 이종호 장관을 만난 김 지사는 충남혁신도시 칩앤모빌리티(Chip&Mobility) 영재

학교 설립, 국·공립 전문과학관 설립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태백시, 2024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태백시는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이상호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장, 전체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국도비 사업 발굴 보고회에 이어 2024년 국도비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추진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국도비 사업은 48건, 총사업비 4,974억 원(신규사업 30개, 계속사업 18개)이며, 이중 2024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은 1,096억 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태백 지식산업센터 건립(249억) △태백역 일원(삼수3지역) 도시재생 사업(200억) △소도~어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200억) △지역재생마을 조성사업(176억) △태백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59억) 등이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으로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도 일반사업으



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사업 발굴과 도비 예산확보 활동에 총력을 다해 시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시 핵심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내년도 국도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 예산편성 순기보다 한 박자 빠르게 대응하고 전방위적

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출된 국도비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모사업 등 신규사업 추가 발굴을 위해 오는 8월 중 2024년 국도비 확보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상근/기자

진천군 '천년의 숨결 농다리, 발길을 잇다'

제23회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5월 26일~28일까지 열려

진천군 대표 행사인 제23회 생거진천 농다리축제가 오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동양 최고(最古) 돌다리인 농다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천년의 숨결 농다리, 발길을 잇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각종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축제 첫날인 26일은 농다리 고유제를 시작으로 진천어린이합창단, 불꽃놀이, 축하공연, 농다리 드론 불꽃쇼 등 화려한 축제의 개막을 알릴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농다리 걷기대회, 백일장, 사생대회, 견지남시대회 같은 문화행사와 경기민요 우리 소리 공연 등 문화·예술 공연으로 축제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마지막 날에는 농다리 장사 씨름대회, 물수제비 체험, 맨손 메기 잡기대회 등이 열리며 농다리축제의 상징인 상여다리 건너기, 농사철 다리밟기가 진행된다.

이어 진천아리랑 공연, 용용리 농요 시연 및 흥겨운 사물놀이로 축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제18회 농다리 전국가야제와 제9회 등용문축제가 함께 연례로 추진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푸드트럭, 프리마켓, 어린이놀이장 운영으로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진천군은 축제기간 현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버스는 '생거진천전통시장' 백곡천 하상주차장(농협아래)~진천버스터미널~진천읍사무소~화랑공원(구)~장미웨딩홀~삼진아파트 상가~문상초교~농다리전시장 순서로 운행된다.

26일은 오후 1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27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30분 간격으로, 28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0분 간격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중식시간(12:00~13:00)과 석식시간(18:00~19:00)은 운영을 쉰다.

장주식 농다리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 농다리축제가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방문객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중을 기했다"라며 "진천의 자랑, 천년의 농다리에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원주시, 제2차 비상경제 대책회의 개최...주요 대책 점검

전통시장 주차문제 해결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 다각적으로 검토

원주시가 지난 2월에 이어 8일 두 번째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주요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원광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국·소·원장, 관련 부서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6개 신규대책을 포함한 총 37개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검토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은 중앙동 252번지 일원에 지상 5층, 200명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179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유시장 뒤편의 공영주차장은 필지를 추가 매입해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밖에도 원일로 가로화단을 정리해 연말까지 50면 내외의 노상주차구역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등 전략산업 분야 중·대규모 우량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원주물을 활용한 기업제품 홍보마케팅 강화 방안

도 논의 원주시는 2023년 내 중·대규모 우량기업 3개 사 이상 유치를 목표로 두고 있다. 특히 반도체, 2차전지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집중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글로벌 반도체 부품기업인 인테그리스코리아와의 투자협약에 이어 5월 중 ㈜서울에프앤비와 480억 원 규모의 신설 투자협약 체결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업체들과 투자 협의회도 진행하고 있다.

관내 기업제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원주물'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주물은 최근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14개 사가 신규 입점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도 직거래 장터, 라이브커머스 등을 활용하여 판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 6월 지역행사 풍성, 도시 활력 충전

6월 10일 제1회 원주 반려동물 문화행사(무실동, 중앙근린공원)를 시작으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전국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MMA(중합격투기) 페스티벌(로드 FC 경기)도 개최된다.

또한, 원주 트레킹 페스티벌(6월 중, 행구수변공원), 치악산 둘레길 트레일러닝 대회(6·9월, 2회),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장 체육대회(6~7

월 중) 등 다양한 지역행사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11월 중 '원주 만두축제', '강원감영가을 국화축제' 등 새로운 대규모 지역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구 원주역 개발, 동부순환도로(번재소류지~백호정사간)개설 등 도시 성장을 이끌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도 점검

구 원주역 부지에는 공영주차장 및 택시 쉼터 조성, 바람길숲과 연계한 구 원주역사 리모델링 사업 등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과를 비롯해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등 4개 부서가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와 원주IC를 연결하는 동부순환도로(3구간, 번재소류지~백호정사) 개설공사도 6월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더 나은 경제 환경을 만들고 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지역 경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라면 혁신적이고 때로는 과감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원주의 경제 전성기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 수문관리 철저히 해달라"

아산시 5월중 주간 간부회의 "수문별 자동개폐 시스템 작동시험 점검"

박경귀 아산시장은 8일 시청에서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다가오는 6월과 7월의 우기에 대비하여 취약 지구의 안전 점검과 곡교천 일대의 수문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시했다.

박경귀 시장은 시 국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아산지역은 곡교천을 끼고 있고, 산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산지에서의 산사태 예방이 필요하고, 곡교천 일대의 수문은 아산시가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20년도 곡교천에서 수해가 났을 때 아산시가 관리하는 수문들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문들의 정보를 알지 못해 신속한 대처가 미흡했다"면서 "관리 주체를 달리하더라도 아산시와 농어촌공사



가 정보를 교환하고 관리자도 지정해 비상 연락망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문 관리에 대한 자동 개폐 시스템 모의시험도 해보고 CCTV 정보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또 초사동 일원 임도 신설공사와 관련해 "산지 지역 임도를 건설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잘린 땅이 생기고 사면이 생기면서 토사가 불안정하게 된다"면서 "이에 대비해 실시설계나 시공감리를 철저히 해 토사 붕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달라"고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김원호/기자

화천 DMZ 랠리 14일 개막자전거로 민통선 따라 질주

14일 오전 9시, 화천청소년수련관 출발, 73km 구간 통과

국내 최고의 마스터즈 대회로 손꼽히는 2023 화천 DMZ 랠리가 오는 14일 개최된다.

화천 DMZ 랠리는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민간인 통제선을 넘나드는 총연장 73km 코스에서 치러져 라이더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인기 대회다.

화천군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의 경기는 개최 당일 오전 8시30분 화천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이어 오전 9시 정각에 시작된다. 대회는 개회식에 이어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부터 시작된다.

참가자들은 수련관을 출발해 화천대교(인공폭포)부터 해산~해산령~해산터널 입구 구간~평화의 댐~안동철교를 거쳐 한목령~탄산~화천청소년수련관 구간을 달리게 된다.

많은 인원이 출전하는 만큼, 화천군은 유관 기관단체, 사회단체들과 함께 주요 구간 교통 통제, 코스별 급수 봉사, 중도 포기자 후송 차량



운영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회를 준비 중이다.

대회장 및 각 코스에는 군청 공무원과 대회 운영사 스텝 등의 안전 관리 요원이 배치된다.

화천군은 수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이벤트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역시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전비를 납부한 참가자 전원에게 2만원 상당의 화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되고, 대회에 필요한 물품 구매 역시 지역 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대회를 앞두고 훈련을 위해 화천을 찾는 마니아들도 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전국에서 화천을 찾아주시는 자전거 라이더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최고의 대회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경기도·국정원·공공기관·경제단체,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에 힘모은다

8일 '중소기업 기술 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 유출 방지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가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 경기도 공공기관, 경제단체와 함께 협력관계를 구축해 선제적 대응을 한다.

연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국가정보원 지부장,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임문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 부문 상임이사, 유동준 경기도테크노파크 원장,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김식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중소기업회장, 서석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 이원해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장, 이대표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명예회장과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실태점검 및 보안 방안 자문 ▲산업기술 사전 예방 활동과 지원에 관한 협력 방안 ▲산업기술 유출 발생 시 침해 조사 및 조치 대응 지원 ▲산업기술 유출 신고 채널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정보공유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4월 체결한 '경기도(북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경기 남부는 민선8기 역점사업인 미래 성장 산업의 중심지로 반도체 클러스터, 미래 자동차,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전략적 핵심 기술 산업군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만큼 산업기술 유출 방지가 절실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은 협약기관을 통해 '기술보호 활동'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과 경제단체는 첨단산업 지원, 피해접수 창구 역할, 기술 침해 동향 파악과 홍보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해외 유출 예방과 사후 피해복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경기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과 함께 희망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국정원은 국내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2003년 설립된 '산업기밀보호센터'를 주축으로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차단을 지원하고 있다.

국정원이 최근 5년간(2018~2022)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3건이며 기업 피해 추산액은 25조이나, 실제 적발되지 않은 유출 건수를 고려해볼 때 기술 탈취가 산업 전반에 끼친 피해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안 체계가 잘 구축된 대기업보다는 보안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 협력사를 통해 기술을 탈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내 미래 성장 산업군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유망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태영 경제부지사는 "산업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결정짓는 만큼 중요한 존재"라며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환경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갤럭시 워치의 불규칙 심장 리듬(IHRN) 기능, 美 FDA 승인 획득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시리즈에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삼성 헬스 모니터(Samsung Health Monitor)' 앱의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IHRN, Irregular Heart Rhythm Notification)' 기능이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 기능은 하반기 출시되는 갤럭시 워치 신제품에 탑재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 워치5와 워치4 시리즈'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불규칙한 심장 리듬은 갤럭시 워치의 '바이오 액티브 센서'를 통해 감지된다. 실제,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갤럭시 워치 사용자 불규칙 심장 박동을 연속적으로 감지하면 이를 이상 징후로 판단해 '심방세동' 가능성이 있다는 알림 메시지를 워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안내한다. * 바이오 액티브 센서는 갤럭시 워치4 시리즈, 갤럭시 워치5 시리즈에



탑재돼 있음

*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IHRN)이 없어도 심방세동 증상이 있을 수 있음
* 심방세동: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 측정되는 부정맥의 일종. 혈전, 뇌졸중, 심장마비, 기타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또한, 정확한 심장 박동 측정을 위해 갤럭시 워치에 탑재된 '심전도'

기능을 실행하라고 추가로 알려주며, 사용자는 삼성 헬스 모니터 앱의 '심전도(ECG) 모니터링' 기능에 들어가 불규칙한 심장 리듬의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다.
* 삼성 헬스 모니터 심전도(ECG) 앱의 사용 가능 여부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 헬스

팀장 혼 팍(Hon Pak) 상무는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 기능은 심장 관련 위험 상황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삼성전자는 고객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모니터링 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충북,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 선도한다

국내 최초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상업화 도전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창에 위치한 원익머트리얼즈 본사를 방문하여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사업확대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암모니아 기반 수소 추출방식은 분리과정에서 수소와 질소가 분리되어, 수소추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한 친환경적 수소생산 방법이다.

원익머트리얼즈는 국내 최초 상업용 암모니아 수소추출기 생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4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함께 국제과제로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연구를 시작하여 8년간의 끈질긴 연구 끝에 2021년 순수 국내기술로 일 500kg의 수소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다.

개발한 장비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에는 아직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시스템에 대한 상세 검사기준이 없어, 사업화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던 중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특구사업자로 선정되어 규제 없이 암모니아 수소추출기를 실증할 수 있게 됐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역에서 추진되는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사업은 암모니아에서 추출한 수소를 99.997% 이상의 고순도로 정제하여 반도체 공정이나 수소충전소 공급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암모니아 수소화 장비를 포함하여 촉매제조 공정,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암모니아 도입 및 향후 사업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암모니아는 과거 비료의 주원료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수소를 경제적으로 저장·운송하고 추출할 수 있는 방식이자 국가 간 수소거래의 핵심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22년 11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2030년까지 연 400만톤급의 암모니아 인수기지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물은 풍부하지만 에너지가 부족한 충북의 현실에서 암모니아·바이오가스와 같이 청정수소를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발상의 전환이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핵심"이라며 "충북을 청정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첨단기술기업 세종에 2,020억 신규투자 약속

OLED 식각라인·유기금속전극소재 공장 신증설, 100명 고용창출 효과

세종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켄트로닉스'와 '레이크테크놀로지'가 2,020억 신규 투자를 확정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9일 청사 4층 한글책문화센터에서 켄트로닉스, 레이크테크놀로지와 2,02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투자는 차세대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규 라인에 대한 투자로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등 지역 사회와 동반성장 효과가 기대된다.

켄트로닉스는 지난 40년간 화학, 전자, 자율주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세종의 대표 중견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켄트로닉스는 청송농공단지 1만 6,297㎡ 부지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식각 제조 시설을 증설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증설 라인 공장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최소 50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켄트로닉스 김용수 대표는 "가전제품·휴대폰·자동차·디스플레이 등에 적용하는 소재부품, 케이칼 등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신규사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크테크놀로지는 국내 유일의 TMA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촉매·태양전지·LED 등의 소재를 생산하는 레이크머트리얼즈의 자회사로 지난 2020년 설립됐다.

레이크테크놀로지는 미래산단 7,590㎡ 부지에 신규 시설 투자에 유기금속전극소재 공장을 2027년까지 건설하기로 하고 5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다.

김진동 대표는 "연구역량을 집중해 혁신제품 개발 및 사업을 다각화하고, 유기금속 분야 특수화학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켄트로닉스와 레이크테크놀로지의 투자 결정은 세종시의 미래를 밝히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성공 투자와 첨단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경기남부 심장 사통팔달 오산이 최적지"

오산시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서 최적지임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의 현실화를 위한 전략 테스크포스(TF) 구성에도 착수했다.

오산을 반도체 소부장 특화도시로 변화시켜, 인구 50만 시대를 앞당기고, 경제자급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이권재 시장의 의지에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지정 공모를 시작했으며, 오산시는 가장지구를 비롯한 신규 후보지 3곳에 대한 공모를 신청했다. 최종 발표되는 오는 7월까지 시는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되면, ▲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 비용지원 ▲국·공유재산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환경·노동 관련 규제 신속처리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등에 대한 폭넓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오산은 경기 남부권역의 심장에 해당하는 지리적 이점이 있으며, 혈관에 해당하는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어 'K-반도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용인, 평택, 이천 등으로 빠르게 소재와 부품을 전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반도체 연구 인력이나 간부급 인사들이 선호하는 곳이 오산이라는 평도 나온다.



세부적으로 오산은 삼성전자 화성·기흥캠퍼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평택펄퍼스, LG이노텍 평택사업장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용인 남사읍 반도체 클러스터와 사실상 맞닿아 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화성↔오산↔이천)를 통한 기차차 화성사업장,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까지도 30분에서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수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아주대 지능형반도체공학과, 오산대 반도체장비학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테크노파크 등과의 산학연 연계도 가능하다. 개발예정지 중 한 곳은 시유지로서 토지보상 등의 절차가 불필요해 바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리서치메뉴팩처링코리아(유)가 위치해 있으며, 이데미트코산(주) 연구센

오산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나섰다

터의 금년 하반기 가동이 예정돼 있어 반도체 소부장 기업 간 협력 및 스타트업 육성 활성화도 기대된다.

또한, 세계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아시아 최초 연구개발 센터를 오산시에 계획하고 있고, 그 외에도 반도체 관련 기업 20여개 사가 오산으로 이전·확장 등의 투자유치를 협의 중에 있어 오산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미래산업의 쌀이 되는 반도체의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특화단지가 조성돼야 미래도시 오산의 먹거리가 풍성해져 시민이 풍요로워 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치전에 적극 나서겠다"며 "산자부가 K-앵커기업, 산학연 연계가 가능한 경기남부의 반도체 심장, 오산의 강점을 알아봐주고 특화단지 지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시현기자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일상 속 폐자원을 소재로 한 체험형 전시·업사이클 놀이터·개최

광명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5일부터 일상 속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 놀이기구, 놀이터가 재탄생되는 '업사이클 놀이터'전의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업사이클 놀이터'는 국내외에서 보기 드문 체험형 전시로 작품을 감상하면서 전시물을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람 형태에서 벗어나 관람객들이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직접 전시물을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전시작품으로는 ▲해양 쓰레기로 바다를 시각화한 김정아 작가의 '아름다운 강산' 작품과 업사이클 노래방 ▲종이통(지판)으로 구현한 두더지 게임 ▲그물망의 핵심"이라며 ▲타이어로 만든 시소 ▲숨이불로 숲속 동화 공간을 표현한 우지현 작가의 '무지개가 사는 숲' 포토존 등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업사이클 체험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며, "관람객들이 폐기물로 여겨졌던 소재들이 다시 일상에서 새로운 가치로 창출된 전시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며 업사이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원순환경제 시대 광명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전시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단체관람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누리집에서 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윤용민기자



경북교육청, 디지털 대전환뉴노멀 경북교육이 제시한다!

경북교육 디지털 전환 워킹 그룹 출범



경북교육청은 디지털 전환을 대비해 본청 부서 및 직속기관의 디지털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경북교육 디지털 전환 워킹 그룹'을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워킹 그룹은 오는 12월까지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경북교육의 일관된 비전과 방향성 모색, 체계적인 정책과 사업의 설정을 위한 기초 작업과 부서 간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워킹 그룹에는 경북교육청 정책혁신과, 창의인재과, 유치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예산정보과, 소통협력관과 직속기관인 경북교육청연구원과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가 함께 했다.

최근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 관련 부서를 개편했으며, 일부 시도교육

청은 전담 부서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만큼 디지털 교육이 미래 교육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미 '2022 미래교육정책연구단'에서 향후 경북교육의 핵심 5대 영역 중 하나로 디지털 전환을 설정했으며, 2023~2026 경북미래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경북교육 디지털 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교육, 유·

초·중등교육, 시스템 운영, 정책개발 등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관련 부서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직개편이나 인력의 총원 없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워킹 그룹을 출범하게 됐다.

경북교육청은 3일 본청에서 워킹 그룹의 발대식을 겸해 인공지능 활용 방안,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등을 주제로 회



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각 부서와 기관 그리고 다양한 직종별 전문성이 더해져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단기적으로는 현안 문제들을 협력적으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도메인 지식을 보유한 구성원들이 모여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갖게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 검무서재도 처음에는 햇볕이 들지 않고 쓸모없이 버려진 공간이었으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에서 모두가 즐겨 찾는 공간으로 거듭났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새로운 상황이 필요한 시기로 앞으로 워킹 그룹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전통시장 체험형 경제교육 활성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시상인연합회와 협약 체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8일 오후 5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부산광역시상인연합회와 전통시장 체험형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학생들의 지속 가능한 경제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전통시장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체험 프로그램 관련 사업 운영과 지원, 성과 관리 등을 협력한다. 부산광역시상인연합회는 상인들의 사업 참여 및 협조 독려

등 프로그램 진행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우리 교육청의 교과과정 연계 전통시장 체험형 경제교육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학교 밖의 경제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며, '부산광역시상인연합회'는 부산 지역 시장 상인들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번영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송종진기자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광고신도시로 이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신청사 이전을 시작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5일부터 5주간 실·국별 순차적으로 광고신도시(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에 위치한 남부신청사로 이전한다.

민원실은 방문 민원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20일(토)에 이 전해 22일(월)부터 신청사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언제 어디서나 근무가 가능한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해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청사 이전 홍보를 강화해 경기교육가족과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사 접근 편의성 강화를 위해 광고중앙역에서부터 남부신청사 출입구까지 현수막과 배너를 게시하고, 지하 주차장 내 유도선 설치와 건물 내부 안내 표지판을 개선한다.

도교육청 김향희 남부청사신축추진단장은 "도교육청 이전으로 경기교육가족과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며 "이전 기간 중 도교육청을 방문하는 분은 부서별 이전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교육청, '생존수영교육 시범 유치원' 운영 유아의 생명 보호 능력과 기초체력 향상 지원

수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자기 생명 보호, 기초체력 향상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생 대상 생존수영교육 운영으로 수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힘써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유아기 단계부터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 ▲비상 상황에 자신의 생명 보호 능력 강화 ▲유아의 건강 및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시범 유치원을 운영한다. 시범 유치원은 4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한 총 9개 유치원(공립 3개원, 사립 6개원)으로,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시범 유치원마다 5월부터 12월 중 10차시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유아의 발달 및 안전 등을 고려해 1일 최대 3차시(1차시 40분 기준)까지 운영 가능하다.

생존수영교육 수영장은 ▲유치원 자체 수영장 ▲인근 초·중등학교 수영장 ▲지자체 수영장 ▲이동식 수영장 등 유치원과 지역 여건에 맞



게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으며 체험 중심으로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수영장 현장 안전 점검 및 컨설팅으로 수영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시범 유치원 협의회 개최와 운영 결과 나눔 등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은 "유아기 생존수영교육은 수중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생존수영교육 확대를 위해 유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전남교육청,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설명회' 개최

'지속가능한 전남교육생태계 구축 위한 협치기구' 구성·운영

전라남도교육청이 5월 10일 오후 3시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도내 학부모, 교직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도민에게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위원회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이다.

교육협력위원회는 도내 민·관·산·학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교육과 일자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전남교육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협치기구로 기존

의 '전라남도교육참여위원회'를 새롭게 확대·개편한 것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설명회에서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가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실행력 있는 협치 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는 도교육청과 22개 교육지원청별로 각각 구성될 예정이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시·군·별 설명회를 가진 후 5월 22일(월)부터 일주일간 위원을 공개모집할 계획이다.

정해명기자

제 35회 고양행주문화제

2023. 5. 19. 금 ~ 21. 일 3일간
행주산성역사공원, 행주산성 일원

드론불꽃쇼
"그날의 불"

5. 20. 토
20:30

행주산성역사공원
수상무대

행주대첩
박 러트리기 대회

5. 20. 토 ~ 21. 일

행주산성역사공원 내
투석전 경기장

뮤지컬
"행주대첩"

5. 21. 일
19:00

행주산성역사공원
메인무대

수상
불꽃놀이

5. 20. 토 ~ 21. 일
20:50

행주산성역사공원
한강수상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행주, 당신의 일상에 '돌'을 던진다

주최 | 고양특례시

주관 | 고양문화재단

문의 | 1577-7766 www.artgy.or.kr www.hjfestival.or.kr

청주시, 2023 가드닝 페스티벌 개최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정원 속의 청주, 청주 속의 정원' 주제로 동부창고에서 개최

'2023 가드닝 페스티벌'이 오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청원구 내덕동 동부창고 일원에서 개최된다.

정원문화 대중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정원 속의 청주, 청주 속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함께 협력해 진행한다.

시는 전국적으로 광풍이 불고 있는 각종 '정원' 관련 사업과 관련, 전시분야, 문화예술분야, 시민참여분야, 학술분야 및 기타 편의시설분야 등으로 나눠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트렌드를 선도하는 작가 정원부터 시민들이 꾸민 정원까지 한눈에!

전시분야는 작가(model)정원 5개소, 기업참여정원 1개소, 시민참여분야 정원 12개소이다.

트렌드를 선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작가정원은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로 진행한 결과 총 15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주관사인 사단법인 한국정원디자인학회가 구성된 작품선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5개의 작품이 선정됐다.

선정된 작품은 오는 10일까지 실물로 조성되며, 행사기간 이후에도 존치될 예정이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ESG경영 실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청주산림조합(조합장 조영연)은 'SJ 숲정원'이라는 주제로 약 80㎡에 기업참여정원을 조성, 시민들에게 정원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원 문화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정원은 총 12개소이다. 시는 2019년부터 매년 30~50명씩 양성한 시민정원사를 대상으로 각 기수별 3개씩의 팀을 구성해 총 12개소의 개별정원을 조성하고 작가 및 기업정원과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시민정원사들이 꾸민 정원은 다양한 정원 관련 식물 및 아가자기한 소품들로 개성있게 꾸며, 방문객들이 정원의 모습을 다채롭게 구경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구성했다.

▶ 문화예술 및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동부창고는 옛 청주연초제조창의 담뱃잎 보관창고로 쓰이던 장소였지만 현재는 시민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공간을 활용, 문화예술 및 정원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예술분야 행사로는 정원속 낭만버스킹, 정원 시네마, 정원 속 북카페 등이 있다.

정원 속 북카페는 시립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과 함께 협업해 정원 속에서 정원을 감상하고 휴식과 독서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한다.

체험프로그램은 총 12개로 정원 관련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정원 관련 프로그램은 가족화분, 가드닝 다육식물 만들기, 가드닝 에코백 만들기, 재활용 화분 만들기, 압화 책갈피 만들기, 스텐다이크 만들기 등 총 8개이며, 일반 프로그램은 캘리그라피, 대나무 솜대 만들기, 우드버닝 및 반짝이 글씨 만들기, 패브릭 열쇠고리 꾸미기 등 총 4개이다.

또한, 가정의달 5월을 맞아,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버블쇼, 5월의 봄 5초를 잡아라(선물증정 이벤트), 포토존 즉석인화 이벤트 등이 준비됐다.

푸드트럭(8대), 플라마켓(20개) 등도 운영하며 행사장 곳곳에 피크닉 돔 및 포토존 등을 설치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사)한국정원디자인학회와 함께 동부창고 6층에서 한국정원사의 새로운 트렌드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해 정원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드닝 페스티벌은 정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나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식물과 자연을 찾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 준비한 행사"임을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정원문화를 선도해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가드닝 페스티벌은 정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나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식물과 자연을 찾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 준비한 행사"임을 강조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정원문화를 선도해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제8회 부산원도심활성화축제 <부산고 페스티벌> 개최

- 신나는 것이 가득한, 아주 멋진 원도(심)랜드
- 오싹하고, 읽고, 만나고, 느끼고, 취하고, 5가지 테마 프로그램 진행

부산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21일 까지 양일간 동구·영도구 원도심 2개 구 일원에서 '제8회 부산원도심 활성화축제 <부산고(Go)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8번째를 맞이하는 '부산원도심 활성화축제 <부산고 페스티벌>'은 원도심의 다양한 명소를 재조명하고 체험하는 행사로, 올해는 동구, 영도구 원도심 2개 구를 선정해 기존의 골목길 중심의 축제 콘텐츠를 탈피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콘텐츠를 집중 발굴해 다양한 테마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이 몰랐던 원도심의 명소와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오싹하고, 읽고, 만나고, 느끼고, 취하고]의 5가지 테마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지역 특색을 살린 야간 미션 투어, 북콘서트, 록밴드공연, 어촌마을체험, 휴식(힐링스테이)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참가자들이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진행한다.

동구에서는 오싹하고, 읽고 2개의 테마로 프로그램을 진행, 오싹하고-미스터리 증상은 5.20, 21일 오후 5~10시까지 이틀간 중산공원에서 역사와 공포를 테마로 야간 미션 투

어를 체험하는 행사이며, 부대행사로 형광물감을 활용한 꾸미기 체험과 신나는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DM)'과 댄스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읽고-산북(BOOK)도로 콘서트는 21일 오후 6~8시까지 동구도서관 책마루전망대에서 진행돼, 노중훈 작가의 강연(원도심 식당 여행)과 재즈밴드 '멜로'의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영도구에서는 느끼고, 만나고, 취하고 3개 테마 프로그램을 진행, 느끼고-미니 록(록) 페스티벌은 20, 21일 오후 3~5시까지 이틀간 태종대감지해변에서 진행되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록밴드 공연과 함께 자갈밭 위에서 발바닥 지압도 하는 시간을 갖는 이색 공연행사이다. 출연진은 20일 밴드기린, 시너갯, 해성, 칩앤스위트, 21일 성해빈, 일렉트릭, From2020, 라펠코프가 나설 예정이다.

만나고-하리향 샘플러는 20~21일 오전 11시~ 오후 4시까지 이틀간 동삼동 하리향 일원에서 해설사와 함께하는 패총전시관 관람, 하리향 및 해양을 주제로 한 퀴즈 등을 통해 어촌마을을 본보기 형식으로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취하고-주(酒)휴(休)는 20, 21일 오후 4~10시까지 이틀간 영도 북빈물량창 대체부두에서 바쁜 일상 속 '술'과 '쉼'이라는 연료를 주입, 다시 일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주(酒)휴(休)소'라는 테마로 술(음료)과 부두의 야경을 만끽할 수 있는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각 장소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완료한 참가자들에게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념품 또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할인쿠폰도 주어질 예정이며, 부산관광공사와 <2023 중부산커피워크>, <골목길 관광-영도봉산마을 마실길>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부산고 페스티벌>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일(목)부터 5월 18일(목)까지 15일간 사전 예약 또는 현장 접수로 모집하며(일부 선착순 및 유료), 자세한 내용은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b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축제관계자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한 올해 축제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해 원도심 곳곳에 숨겨져 있던 매력을 발견하고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영등포구, 청소년 축제 '들樂날樂'에 흠뻑 빠져 볼까

5.15.~5.20. 지역 내 청소년시설 9개소에서 청소년 축제 개최

영등포구가 청소년의 달을 맞아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역 내 청소년시설 9개소에서 2023년 청소년 주간 축제 '들樂날樂'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들樂날樂"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청소년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오고 가며 축제를 즐긴다는 뜻이다. 기존의 1회성 행사를 탈피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어서와~영정문은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드론, 자율주행차, 로봇 공학 등 미래 직업과 관련된 '4차 산업 페스티벌, 꿈틀랜드' ▲식물성 재료로

르방꾸키를 만드는 '암암베이킹'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디퓨저로 재탄생하는 'UP사이클링' 등 지역 내 학교와 연계해 주중에 운영한다. 5월 20일에는 모바일 카트라이더 서바이벌 게임 대회인 '영청문 레이스'가 개인전, 팀전으로 나눠 개최된다.

이 밖에도 로봇 체험, 레트로 게임, 셸프스튜디오 등 다양한 체험부스와 MBTI를 활용한 자녀 진로지도 부모교육, '영사에게 물어보살'이 예정되어 있다.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멘탈: 100'이라는 주제로 ▲나만의 멘탈관리법을 인스타그램 릴스로 제작하는 '내가 멘탈100 콘텐츠' ▲플로깅 활동 후 고민을 적어 스티커와 함께 버리고 인증샷을 전송하는 '스담스담(스레기를 담으며 내마음 쓰다듬기)'이 진행된다.

또한 ▲타로카드, 보드게임 등을 활용한 '행구마 비밀상담소' ▲레크리에이션, 요리활동 등을 통해 관계

를 증진하는 '나(1)들이(WE) 옥상햇빛' ▲동물과 함께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청소년 집단상담 WITH PET(위드펫)' 등 청소년들의 흥미를 돋우는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자율문화공간 1~6호점에서도 '우리끼리 아트'라는 주제로 추리&방 탈출, 바리스타 체험, VR스포츠 대회 등이 풍성하게 펼쳐진다.

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의 우리구소식에서 확인하거나 아동청소년과, 각 청소년시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청소년 시설들이 연합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했다"라며 "청소년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청소년들의 빛나는 꿈과 미래를 힘차게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 우리함께 만들어 가요!

2023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

2023. 5. 5.(금)~6.(토)

장소: 진도개테마파크 일원

주최/주관 진도군

+ 반려견 시범 및 대회

- Dog스포츠 시범 및 대회
- 반려견 10m달리기 대회 등

+ 관광객 참여-체험 행사

- 어린이 탑승형 로봇체험
- 어린이 페들보드 체험
- 어린이 퍼즐 맞추기 체험
- 어린이 낚시체험
- 어린이 비눗방울 체험
- 애견 미용 체험
- 애견 수영장 체험
- 부모와 함께하는 애견 산책
- 반려동물 교감·교육 체험
- 반려견 아로마 만들기 체험
- 진도개 공예품 체험 등

2023 예천활축제, 빛줄기 뚫고 관람객 7만 5천명 찾아 '흥행'

굵은 빛줄기 무색할 정도로 폭발적인 호응, 지역경제 활기 돌아

축제 자원봉사자들의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으로 축제의 성공 이끌어 내

김학동 군수, "하나로 뭉친 계기가 된 축제에 이는 예천 발전의 원동력 될 것"

예천군이 4년 만에 야심차게 준비한 '2023 예천활축제'가 적지 않은 불비 속에서도 전국에서 관람객 7만 5천여 명이 다녀가며 흥행 성공 속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에 치러진 2023 예천활축제는 「K-Culture, 활 문화의 뿌리 예천」이라는 주제로 활놀이터, 예천에서 하루종일 놀자'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예천읍 한천체육공원 에서 열렸다.

매일 특설무대에서는 지역예술인 공연과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 마술쇼가 이어졌고 우리소리축제, 전국가요제, 대구·경북 청소년 댄스대회, 예천국악제, 버스킹, 치맥페스티벌, EDM파티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축제 내내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가 돼, 맘껏 보고, 듣고, 즐기고, 먹는 등 오감만족을 통한 힐링을 만끽한 축제를 즐겼다.

또한, 부대행사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활 서바이벌은 총 181개 팀이 참여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힘찬 응원소리와 환호로 행사장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필드아치리, 호버볼 체험 등 다양한 체험으로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취재진의 시각에서 바라본 이번 '2023 예천활축제'는 그 어느때보다도 약천후 속에서 치러졌다. 이틀째부터 굵은 빛줄기가 내리기 내려 자칫 대회가 위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천군은 시의적절한 행보로 관람객들이 불편함 없이도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노력을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비로인해 바닥이 흥건한 고일 수 있음에 대비해 임시 배수로를 설치하고 바닥 동선을 확보하는 등 이번 활축제를 위해 나온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축제 관계자들이 동분서주한 덕분에 관람객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2023 예천활축제에서는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컨셉 몇가지를 시도함으로써 한껏 축제의 의미를 더한 것이 큰 눈길을 끌었다.

▲이번 축제는 기존의 지난 4회에 걸친 축제는 축제 시기를 가을인 농산물대축제

와 예천군민체전 등과 함께 진행했으나 이번 축제는 5월 가정의 달

을 맞이해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도록 개최시기를 봄철로 바꿔, 많은 관람객이 예천을 찾아 올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흥행몰이를

▲이번 축제의 컨셉을 날짜별로 어린이와 가족, 청소년층, 청년층, 중장년층 등 세대별로 타깃을 정해 행사를 진행했으며, 행사장 구성도 형으로 비친 결과 무대 뒤편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해 탁 트인 개방감을



시간을 마련해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양궁 국가대표인 예천군청 소속 김제덕 선수 팬 사인회,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해병대 보트 체험과 관람객들이 관내 식당 음식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무엇보다 전시관, 활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체험권 5천 원을 구매하면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4천 원 상당의 쿠폰으로 되돌려줘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이번 '2023 예천활축제'는 이틀날부터 계속 내린 비로 자칫 축제의 의미가 무색할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천군의 발빠른 홍보와 관람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 덕분에 어려운 여건을 잘 극복했다.

4일중 3일간의 우중속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7만 5천명이 이곳 축제장을 찾았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써, 이번 축제를 지켜보면서 아무리 약 조건이라도 치밀한 우발대비 계획이 잘 준비된 축제라면 흥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준 축제로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축제예술과 전통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표 축제로서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줘, 타 지자체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덕목으로 보인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2023 예천활축제를 즐겨주시신 군민 및 이곳 예천을 찾아 주신 관람객들과 이번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교통통제, 행사안내, 환경 정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이번 축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뚫돌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이 에너지는 곧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거대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근수기자

봄을 만나, 산나물 파티!

제 18회
영양 산나물축제

YEONG 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기간
5월 11일(목)~
5월 14일(일)

장소
영양읍내 및 일월산 일원

주최 | 영양군 주관 | YFTC 영양축제·관광재단